

定慧社

제 17 호
불기 2542년
여름 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수행은 학력이 아니다

(강원의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송광사 승가대학’

한때 송광사 강원의 명칭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외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에 친숙한 명칭을 붙인 배려였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송광사승가대학’이란 명칭을 ‘송광사강원’으로 다시 바꾸어 달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가대학이란 말에서 낯설고 어색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분명 대학과 강원은 체제가 다른 특성들로 구분되는데 아무리 ‘승가’라는 말을 첨가했다하지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강원이란 명칭이 승가 내에 더 친숙한 이름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대중생활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내주는 것일진대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혹 고학력시대에 스님들의 학력이 문제가 된다면 이름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적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면 분명 문제는 심각해진다.

오히려 강원을 활성화하고 보다 심도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자들은 외부에 승가 체제에 대한 홍보에 힘써서 승가에는 승가의 체제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위상을 높이는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의 잣대는 학력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적인 잣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획일화된 가치관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체제와 수행관을 알려서 불교는 학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임을 주지시켜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교의 위상과 장래를 위해서도 분명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원의 명칭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결점 없이 떠돌아 왔다.

이에 강원을 승가대학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목적이 불분명한 문제로 더 이상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 승가를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화합승가를 이루기를 간절히 발원해본다.

차 례

조계의 물소리	수행은 학력이 아니다	편집부
특별기획	2 / 조계 총림 5대 방장 추대식	편집부
사진 속의 이야기	6	편집부
정혜탐방	8 / 승가 대학원 원장 무비 스님	편집부
기획연재 15	15 /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동문기고	19 / 지독한 울력	회일
지대방 이야기	21 / 동 심	정산
	23 / 봄의 단상	진관
	25 / 작은 것의 소중함	연각
	27 / 내가 사는 송강사 강원	응진
화보소식	30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특별기고	34 / 설법방법론(2)	진옥
만행기	36 / 결망 하나 메고	혜성
독후감	40 / '죽음을 준비합시다' 를 읽고	연일
원전번역	42 / 수 심 결	혜성
	45 / 명 추 회 요	원순
경전한귀절	46 / 걸림없이 살 줄 알라	편집부
정혜사안내	47 / 소년소녀가장돕기와 테이프 판매	편집부
편집후기	48 / 편집후기, 후원안내	편집부



조계총림 제5대 방장 추대식

개 당 법 어

산이라는 산이 없고 물이라는 물이 없다

조계총림방장 범일 보성(梵日 菩成)

山無山이요 水無水라
本來空寂 無一物인데
曹溪山이 어데 있고
松廣寺가 어데 있는가
더구나 叢林이니 方丈이니
云云하니 우섭다

산이라는 산이 없고 물이라는 물이 없다.
본래 비고 고요해서 한 물건도 없는데
조계산이 어디 있고
송광사가 어디 있으랴
더군다나 총림이니 방장이니 하니 우섭다.

아침에는 토끼가 뽕이 있더니
저녁에는 염소가 뽕이 없구나

打柱杖 一下云 주장자를 한 번 치며 이르되

江北成枳江南橋이여
春來都放一般花로다.

강 북쪽에서는 탕자가 되고 강 남쪽에서는
유자가 되지만 봄이 오면 다 같은 꽃이 피도다.

비록 그렇지만 向上一句를 묻는다면
五月 江深草閣寒이라 하리라.

비록 그렇지만 향상일구를 묻는다면 오월에 강물이
깊고 초가집이 서늘하다 하리라.

又云 또 이르되

曹溪山上風雨歇하니
一輪紅日照大千하고
曹溪山下活水來하니
萬種漁鼈盡化龍이로다.

조계산 위에 비바람 그치니 한 바퀴 붉은 해가 대천
세계를 비추고 조계산 아래 활수가 흘러오니 만가
지 고기와 자라들이 다 용이 되도다.

一喝云 또 할 하시면

人生難得이요 佛法難逢이라
幸達佛法得人身하니
猶如 盲龜遇木이라
光陰이 如箭失하고
此身이 如泡沫하니
五等은 切須勤勉하야 勇猛不退어다.

인생을 얻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지라
다행히 사람 몸을 얻고 불법을 만났으니
눈 먼 거북이 나무토막을 만난 것과 같도다.
세월이 빠르기가 화살 같고
이 몸이 물거품 같으니
우리들은 간절히 부지런히 힘써서 용맹하여 물러나
지 말지어다.

又云 또 이르되



戒器搖處定水濁하니
 慧月不現濁水中이라
 原諸佛子持禁戒하고
 勤修定慧證佛果하야
 廣度人天諸衆生하여
 快報無量佛組恩이어다.

계(戒)의 그릇이 흔들리는 곳에 선정(禪定)의 물이 흐려지니
 지혜(慧)의 달은 흐린 물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원컨대 모든 불자들은 금한 계율을 굳게 가져서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서 불과를 증득하여
 널리 인간 천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한량없는 불존의 은혜를 다 갚을 지어다.

卓一下 遂下座

법상을 한 번 올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 위 글은 지난 4월 22일에 있는 조계총림 제 5대 방장
 범일 보성 큰스님의 “개당법어”이다.

절다운 절 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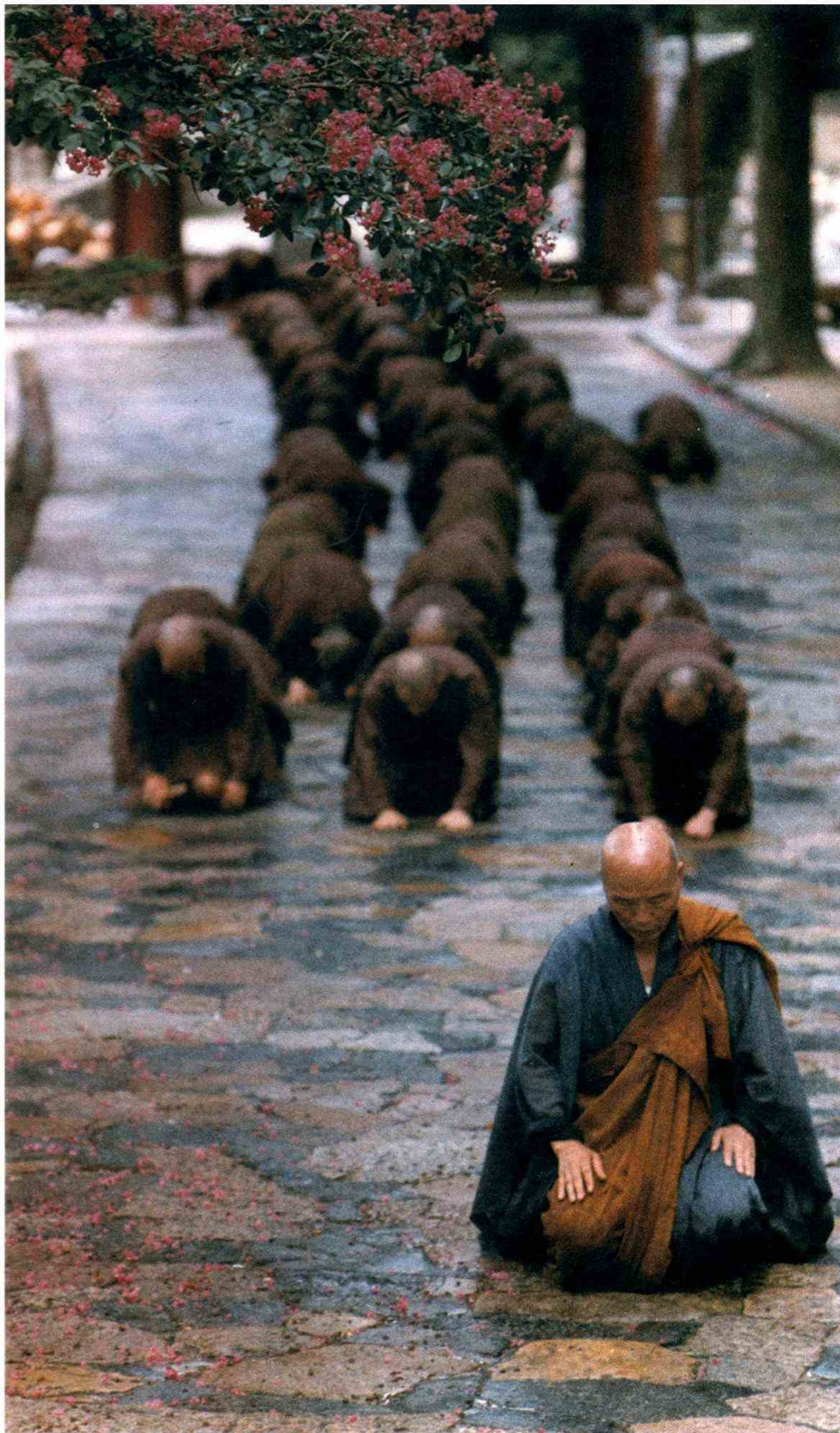
언제나 깊은 선정(禪定)에 빠져있는 송광사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무설설(無說說)이요, 무위법(無爲法)이다. 보조 국사의 정혜 결사의 정신을 고양한 목우가풍(牧牛家風)의 역력(歷力)이 나즈막 하면서 큰 산 조계산에 스며있음이요, 승보종찰로서 16국사를 배출한 우리나라 불교의 성태(聖胎)이기 때문이다.

佛紀 2542年 4月 22日

조계산이 높이를 더하고 우화각 너머 물결이 넘실댈은 50여년을 선정(禪定)과 지계(持戒)로서 일관(一貫) 해오신 범일 보성(梵日 菩成) 큰 스님께서 방장에 추대됨에 사부대중과 삼라만상에 크나큰 덕화(德化)를 보이심인가! 스님께서서는 1928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하여 광복의 해에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하였다. 그후 효봉(曉峰)스님을 시봉하였고 은사스님이신 구산(九山)스님의 지도아래 제방 선원에서 두루 수행하여 백척간두 진일보(百千竿頭 進一步) 하셨다.

그후 스님께서서는 후학들을 지도 하시며 행자 교육원을 개설함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후진 양성과 제도 정비에 힘쓰셨다. 특히 각 계단(戒壇)에서 초심자들에게 “계는 부처님의 행이며 이에 의지하여 불과(佛果)를 이루웠습니다. 계행은 강철을 만드는 담금질이며 정(定), 혜(慧)의 근간(根幹)이 되므로 계행이 없는 해탈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 하시며 철저한 지계의 삶을 강조 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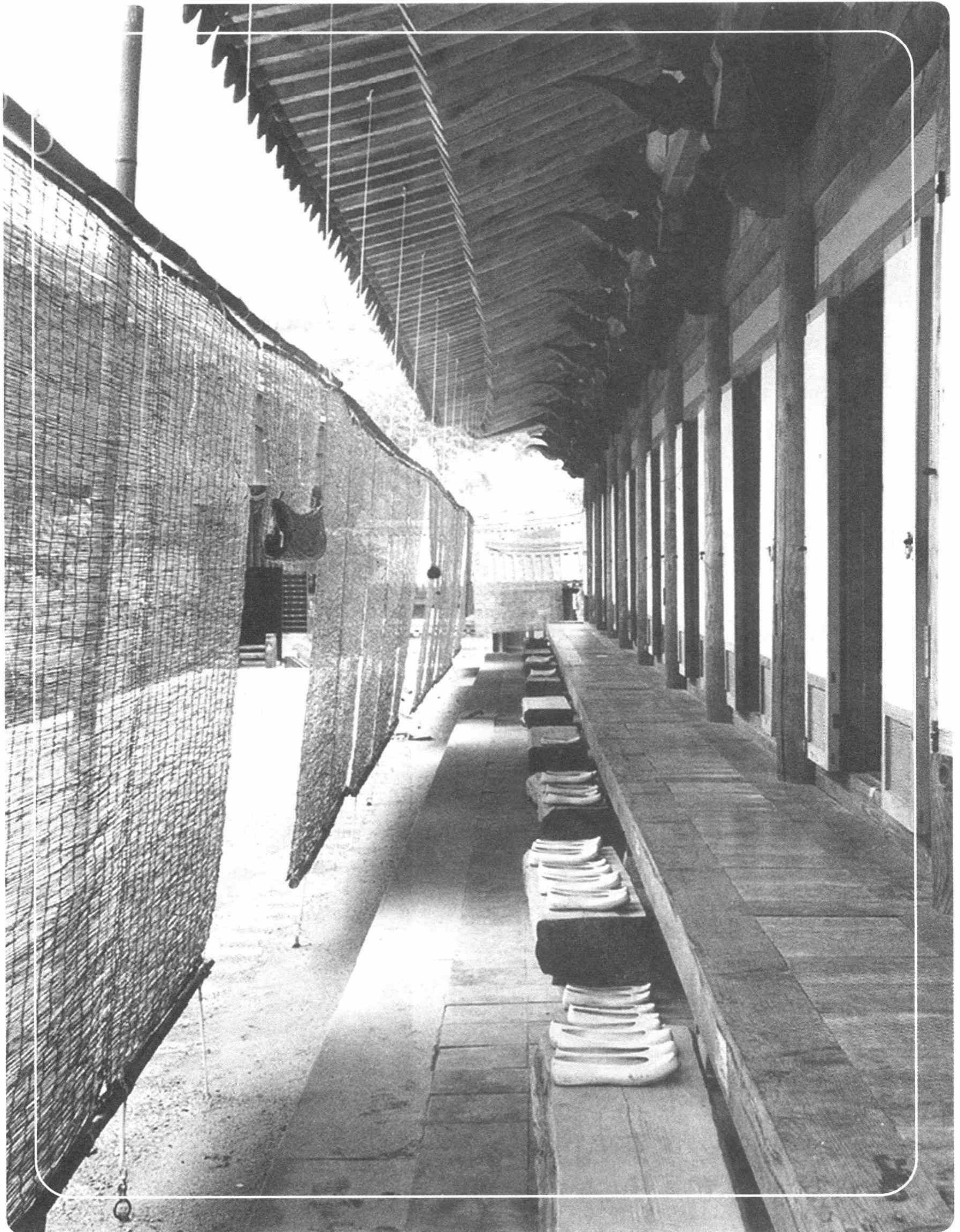
송광사의 새벽이 시작된다. 삼일암 방장실에서는 오늘도 1600년 송광사 어르신들의 한담(閑談)이 들려온다.



▲ 부처님의 주행칠보(周行七步)이신가? 자장율사의 현신(現身)인가? 큰스님의 일배 일배 마다 따르는 행자들의 큰 서원 “이 생에 기필코 생사 해탈 하겠나이다.”



- ① 구산스님 환갑때
좌로부터 원명스님, 방장스님, 부방장스님
- ② 동화사에서
효봉스님, 구산스님, 방장스님, 광선스님 등과 함께
- ③ 동화사에서
효봉스님, 구산스님, 방장스님
- ④ 보조국사 종재시
고산스님, 방장스님, 동당스님, 설정스님, 부방장스님
태응스님, 철우스님, 성우스님, 청현스님





橫看成嶺側成峯
遠近看山了不同
不識廬山真面目
只爲身在此山中

바로 보면 고갯마루 옆에서 보면 산봉우리
멀고 가까이서 보는 모습 끝내 같지 않아라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몸이 여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글 : 소동파

■ 사진.번역 / 편집부

승가대학원 원장

무비스님



인상부터 호방함이 풍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사를 받으신 후 그 덩치만큼이나 넉넉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시작할수 있었습니다

응진: 먼저 요즘 하루 일과와 근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무비스님: 일과는 뭐! 어느 사찰이나 똑같이 새벽예불 ... 여기는 새벽예불을 4시에 한다고. 그거 아주 좋아. 그 대신 10시나 11시에 잘 수 있으니까! 그거 괜찮더라고. 산중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생각했었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 예불 끝나면 공양 전에 한숨씩 자게 되더라구. 요즘 5시면 밝거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까 잘 겨를이 없는 거야. 산이 좋고 산책 코스가 너무 좋아요. 한 30분 조깅을 하고 나서 그날 강의할 것을 준비합니다. 아침공양하고는 도량청소, 산책을 하다가 아침 8시쯤 강의 들어가서 10시까지 강의합니다. 오후에는 연구 발표회가 있으면 연구 발표하고 없으면 각자 개인 공부시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법회가 있으면 오후시간 이나 저녁시간에 가서 법회를 하고 평상시에는 경전을 보다가 10시나 11시쯤 편한 시간에 자고 그래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 단순한 생활이지.

반 결재가 다가오는 여름날이 무더위와 함께 장마의 소식으로 눅눅함을 더해 갈 때 우리 편집부 일행은 은혜사 승가 대학원 무비스님을 찾아뵈려 일주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진주를 거쳐 대구를 지나는 길가 논에는 더위를 조롱하듯 푸르름을 흔날리는 연잎들이 상서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점심 공양을 한후에 들어선 팔공산은 수많은 원들

이 모여있는 곳이며 그 모은 손길의 바램들이 바로 우리의 회향처 라는 생각이 들어 여행 기분에 젖은 우리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합장하게 되었습니다. 갓바위 입구를 지나 10여분후 은혜사 일주문을 지나니 소나무 등걸 뒤로 시원스러운 계곡이 펼쳐져 있어 이곳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맑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맑음의 한 가운데 계시는 스님은 건강한 풍체에 첫

응진: 10여 년을 선방에서 정진하시다가 다시 경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강당을 마치고 선방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시 경전을 보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그 구체적인 계기들이 무엇입니까?

무비스님: 강원에서 치문보고 사집보고 할 때부터 좌선을 했었어요. 어릴 때 범어사 강원에 있었는데 거기는 삼경종 치고는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은 돼. 그때 마침 서장이나 선요를 배울 때라서 화두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했었고 삼경을 지나면 학인스님네들이 거의 반 가까운 숫자가 있어서 있는 거야.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앉아있어.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바람직해서, 그것이 몸에 뻗어요. 강원에 있으면서 간간히 익혔고 그리고 해인사 강원과 울원을 마치고 일주문도 나서지 않고 곧바로 선방을 올라갔지. 그렇게 선방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강원에서 좌선했듯이 선방에서도 틈틈이 좌선하는 사이에 서장·선요·임제록 또 대주스님의 돈오입도요문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봤지요. 도반들은 저 사람은 선방에 있으면서도 책을 안 놓는다는 표현까지 들었어. 그렇다고 눈에 거슬리는 정도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방에서 다니면서도 책을 아주 등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선에 대한 이해 때문이지. 선이나 교니 하는 것이 둘이 아니며 둘이어서도 안되지 서장 선요가 뭐야 선 지침서 아냐. 그야말로 목적지로 가는 이정표라고 흔히 조사스님네들이 말하거든. 이정표대로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확인하고 다시 이정표를 보고 또 가고 왔으면

다 왔는가 확인 해야되고 이 과정에 조사어록이나 경전을 참고해야만 해요. 그후 10여년을 정진하다가 탄허스님을 만나게 되었죠.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은 역경연수원 즉 지금 동국대 역경원이 역경연수생을 뽑아 교육시킨 것이 2번이 있었는데 그 중 1기 교육이 67년도 용주사에서 있었는데 거기를 역장이라고 해서 번역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살면서 앞으로 역경할 사람을 교육시키는 역경사 교육도량이었어요. 종단에서 시행했는데 문공부에서 장학금도 받았죠. 열 명을 뽑는데 한 사오십 명이 시험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스님이 다섯명 속인이 다섯명 뽑혔어. 그래서 열 명이 역경연수생으로 있었어요. 그때 운허스님이 역경원장이고 탄허스님이 역장이라. 운허스님 월운스님 탄허스님등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탄허스님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경학을 다시 시작했어요..

혜성: 부처님 경전과 조사어록을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 강을 건너는 뗏목에 비유하곤 하는데 요즘 경전과 조사 어록에 대해 이해도 없이 선방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비스님: 그건 잘못된거여. 승려가 되기전에 불교 경전을 충분히 봤다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강원에서 봤거나 학교에서 받던지 혼자 받던지 봤으면 상관 없지만 옛날 사람들이 왜 노정기라고 하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라하고 지침서라 했는데, 지침서 없이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이며 닛선길을 지도없이 어떻게 갈거야. 흠족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최소한 전통 강원 과정

이라도 나와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선방생활을 해보면 무턱대고 막 들어와서 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강원을 나와 가지고 그야 말로 사교입선을 한 정상적인 코스를 받는 사람들도 몇이 있고, 강원을 안 나왔는데 상당히 의식 있는 수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강원 나온 것 못지않게 암암리에 상당히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더라고 물론 정식교육을 받는 것하고는 영다르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검정고시 출신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강원도 안 나오고 혼자 고민한 흔적도 없이 무턱대고 선방와서 말 몇 마디만 대충 듣고는 앉아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에요. 시간만 보내는 것이여. 아까운 시간 많이 낭비해. 사실 선방생활이 정말 어렵고 소중한 일이네 그 안에서는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눈에 흰하니 가는 길이 놓여 있어도 제대로 갈까 말까 하는 길인데, 제대로 안내서도 머리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길을 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월 잘 보내는 거지 뭐! 그냥 세월 잘 보내는 거지.

정산: 저희들도 강원을 마치고 나면 선방에서 정진해야만 하는데 선배로써 수좌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비스님: 선방에 있던 일을 조금 이야기하면 내가 선방에 있으면서 편력이 아주 심했어. 부처님이 한 나무 아래서 삼일 밤을 자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 사정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 정신의 일환으로서 선방에 다녀도 한철, 오래 살아도 두철을 살지 않았어. 두철을 살아도 다른 선방에 갔다가 다시 와서 살았지 거둬 살지 않았어 그 대신에 결

제 중에 나온 적은 한번도 없고. 한 십여년동안 그렇게 살다보니까, 회상을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다면 가서 한철씩 모시고 살수 있는 그런 행운을 그때 얻었다고, 예를 들어 동산스님, 향곡스님, 전강스님, 성철스님, 춘성스님등 특히 효봉스님이 동화사에 회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동화사에서 모시고 살았고 효봉스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또 구산스님이 회상을 여니까 그 밑에 가서 살았지. 그래서 조실스님이 계시고 선방에 있는 곳은 다 가서 살게 된 거야. 난 그게 평생에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해도 그게 영광이지. 지금 수좌들은 그렇게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사판들보다 이판이 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선방을 안 떠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선방에 몇년 씩 있어요. 난 이상해 죽겠어요.

보각: 향간에는 선배스님들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 군데 다니지 말고 한 곳에 가서 느긋하게 공부하라”고 충고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스님: 글썽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 장소를 옮겨 보면 정신과 기분이 새로워지거든. 예를 들어서 해제하고 나면 마음이 풀어져요. 해제할 때 안 풀어지면 한 달쯤 되면 풀어져. 그래서 한 달쯤 다녀보고 쉬어보고 책도 보고 또 바쁜 생각이 나면 또 선방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들어갈 때 각오라는 것은 신선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내가 노트를 늘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를 하는 노트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아깝게 여기는 게 그런 노트가 대학노트로 세 권이나 있

었는데 그것을 어느 선방에 들어갈 때 그걸 다 태우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마음을 조여서 들어갈 때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처음 출가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그것이 난 좋더라구. 그 노트에 보면은 제일 많이 써놓은 낙서가 뭐냐면 一入靑山 更不還이야. 최 고운 선생이 중국에서 건너와 한림학사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가야산에 입산하는데 선경 같은 홍류동 골짜기에서 스님들이 걸망지고 내려오거든, 자기는 모든 세상사 인생사 다 버리고 입산하는데 자기보다 각오가 철저하다고 생각한 스님들이 걸망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받은 충격으로 지은 시가 있잖아. 중아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마라. 청산이 좋으면 왜 내려오느냐. 다음날 내 종적을 보아라. 한번 청산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고. 참 멋진 내용이지. 그게 홍류동 어귀에서 지은 시인데 마지막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노트에 항상 들어가 있었어. 그 각오로 들어가는 거야. 나도 청산에 들어가서 절대 인간적인 생각이 라든지 인간으로 다시 살진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들어가. 그러니까 한곳에 오래 살면 나름대로 이익이 있겠지만 새로 재발심하는 마음으로 한철 한철 각오를 다지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구.

혜성: 방금 시를 풀어 주셔서 신심이 저절로 납니다. 수행하는 문제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요. 요즘 향간에 비파사나 선법이라고 해서 지식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있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수행법이 다 보니 동일한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스님: 우리 간화선 입장에서 볼 때 간화선은 선에서 가장 발달된 선이거든요. 초기에는 목조선도 있었고, 수식관도 있었고, 오정심관도 있었고, 별별 관법이 다 있었잖아요. 그 경전들이 그대로 있어요. 조사스님네들이 다 섭렵한 다음에 발전시킨 것이 소위 목조선이고 목조선에서 발전한 것이 간화선이죠.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지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나 봐요. 간화선은 남쪽에선 먹혀들지 않게 되었고, 이쪽 사람들에게는 비파사나가 성에 차지 않는 수행법이라. 비파사나는 조용히 가라앉는 형식이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쉬게 하는데 즉 숨 쉬는 것을 예의 주시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 내가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까지 예의 주시하고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간화선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간화선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망상을 극대화시키는 거라. 많고 많은 망상들을 극대화 시켜서 하나의 망상으로 집중시켜서 그것에 불을 지펴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다 크게 불을 놓아 폭발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몰아 가는 게 간화선이라고. 그게 이쪽 사람들 성질에는 맞아요. 더운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면 땀이 나고 숨이 가빠서 안 돼요. 남쪽지방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강력하고 파워풀한 공부는 안 통하게 돼있어 안 맞아.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말하듯이 깨달음을 강조하지도 안해. 여기는

어떻게 하셔든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냐? 일년이고 오년이고 백년이고 상관없어. 과정은 그냥 과정이지 소용이 없고 폭발이 돼야 해. 저 팔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공부라. 그래서 한번 건졌다 하면 그것이 값진 거지.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지. 그래서 우리 이쪽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하면 맞지도 않고 또 요즘 그야말로 한번씩 해 보는 거지. 정말 생사를 걸고 비파사나를 하는 사람도 없어. 이쪽에서는 생사를 걸고 안 태어난 걸로 삼고 하는 식이거든. 내가 깊이 해 본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다만 최소한도 천 육백년의 우리 불교를 간판에 걸고 산다면 되든 안되든 간화선을 해야 돼요. 우리 선조 스님네들과 조사스님네들이 간화선으로 명맥을 이어왔고 그분들의 명맥에 의해서 오늘날 중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물론 그분들이 했던 공부에 팔만 사천 방편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간화선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화선을 해야 이익이 있고 깨달음의 목표에 그래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길이라고 봐요.

응진: 비파사나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 오면서 술어에 관한 개념이 어려워 격의과정을 거쳐서 중국에 자리잡게 되면서 한자문화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변방에 있어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니까 한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한글 세대이고 또 한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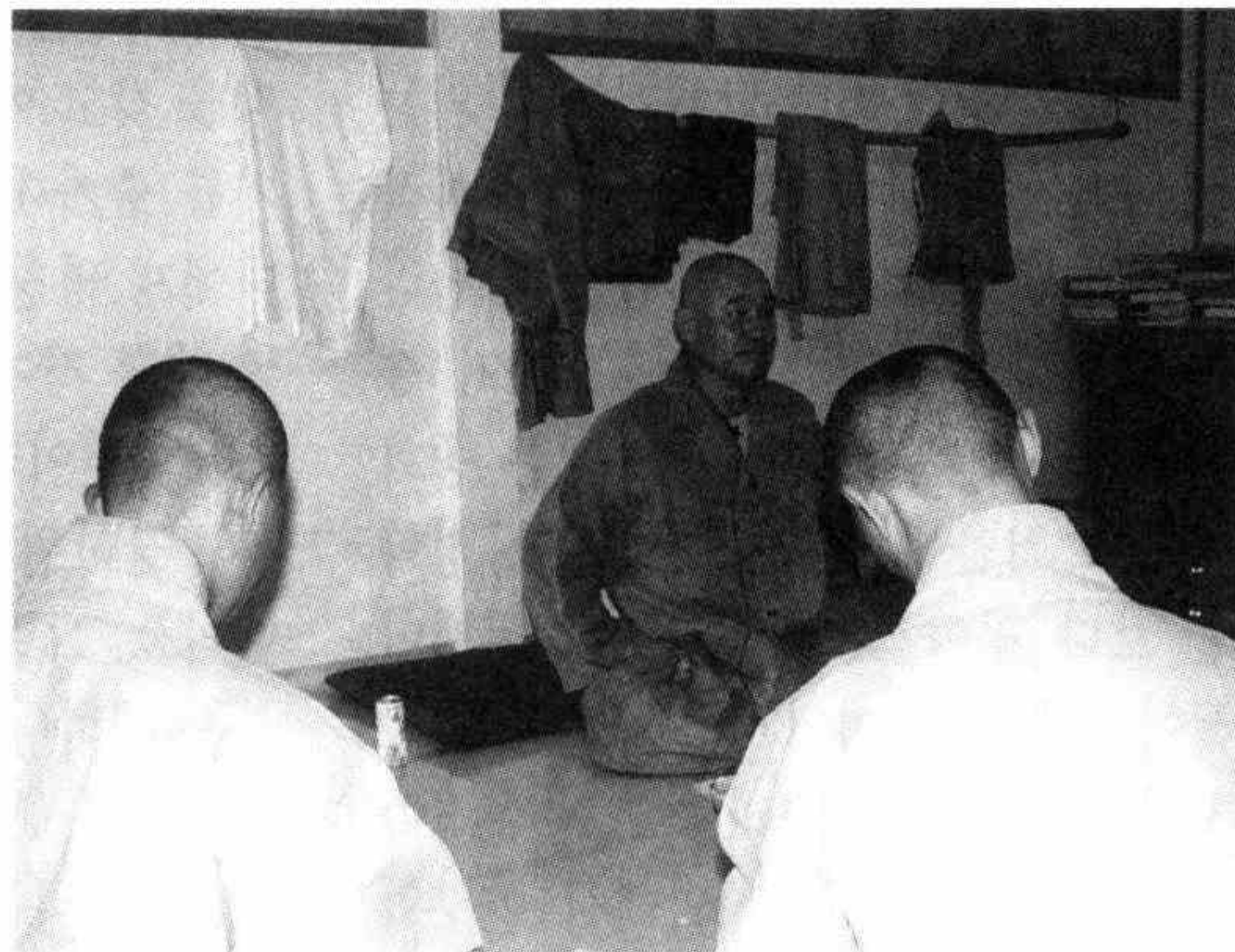
한문과 다른 특징이 있어 역경하신다든가 번역을 하실 때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비스님: 그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뜻있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또 여러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 할 일은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만사 제쳐놓고 그저 1년이고 2년이고 어디 한정된 공간에서 그저 밤낮 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새로운 역경을 모색해야 할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경 한다 하면서도 속시원한 역경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말만 한문으로 바꿔놓지만 이전 것과 약간 다르지 크게 한문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참 답답한 문제라. 우리는 강원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 전문적인 불교용어에 너무 젖어있어 그것에 익숙하니까 바꿀 필요가 뭐 있겠나? 하고 또 전혀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어떤 말을 한번 바꿔보라하면 전혀 얼토당토않게 말을 바꿔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뜻하고 다르게 또 말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앞으로 스님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시험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몇 시간을 토론을 하면서 번역을 시도해보는게 그게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반야심경 하나라도 놓고 그 동안 번역한 걸 다 모아놓고 이

게 과연 번역이 제대로 됐는가? 검토하고 제대로 안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번역이 제대로 되기 전에는 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지 이렇게 한 번 시험을 해보는 거라! 예를 들면 보문품 하나라도 가지고 그건 20분이면 읽는 내용이니깐 한 2-3일 앓혀 가지고 밥취가면서 못나오게 하면서 그걸 번역해보라!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해야돼. 그것도 아주 전문가를.... 다만 7-8명이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서는 안된다고만 해. 자꾸 문제만 삼는 거야 문제만... 문제 제기는 누가 못하나? 맘에 안 들면 그게 문제지 맘만 잘해봐도 맘에 안 들면 문제거여!

진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스님계선 경전을 많이 번역하셨는데 몇 해 전에 하신 '화엄경'은 잘 보았습니다. 당분간 계속 역경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나 작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비스님: 계획한 것은 역수로 많았어. 손대다 만 것은 신도들 중심으로 해석한 지장경·유마경강의본·법화경강의본과 또 임제록, 이것은 내가 아주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인데 내용이 아주 좋아. 이런 것들을 일하는 중에



있어. 그런데 은혜사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진척이 영 안되고 있어.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무한하다 하지만 아직 내 능력은 유한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와서 스님들 치닥거리 하다가 피곤하면 좀 쉬고 또 앉아서 컴퓨터 만지고 또 간단한 거 몇 개나 하고,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언제 산수 좋은데 쳐박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식 끊고 문혀서 그런거 해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야

연일: 승가대학원은 어떠한 취지하에서 설립이 되었고 방향이라든가 현재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비스님: 여기 승가대학원은 처음에 출발이 종회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종회에서 강사도 지내고 전통교육도 어느 정도 몸에 베어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실력이 옛날 스님들만 못하지만 그나마 전통강맥이 끊어진다.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안되는 일이고 하니까 종단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해서 승가대학원이란걸 만들어서 중강 2년 지냈거나 그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한 2-3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전통경학의 맥을 그래도 이어갈게 아닌가? 해서 시작이 된거라. 그래서 나보고도 참여를 부탁하기에 강의는 한 과목 정도는 해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원장이라는 소임까지 맡게 되었어요. 여기 승가대학원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종회에서 처음에 설정했듯이 전통경학을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해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다 보면 역경도 그 안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사실 지금 스님들 과제를 전부 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신이 강의하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것은 번역을 과제로 하고 공부시키죠. 그렇게 해서 전통 경학을 강의하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강사라면 이제는 역경도 해야되지, 그저 강의만 하면 안되고 글 못쓰고 경전을 번역 못하고 주해 하나 제대로 못 달고 해설 못하면 그거 제대로 된 강사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강사가 되면 법사도 되고 포교사도 되고 역경사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렇지? 주지도 할 수 있어(웃음)

응진: 요즘 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의 명칭 문제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학과와 강원과의 위상 문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여기도 승가대학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불교적인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무비스님: 글썄!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을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승가대학원이라 했던 것도 처음 나에게 명칭을 가지고 묻기에 이름을 몇 개를 지어 올렸지. 그 이름 중에 승가대학원이라는 말은 없었고 삼장학원·경학원·삼장원등 그런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총무원 쪽에서는 대학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강원을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솔직히 맘에 썩 내키지

가 않아. 종단에는 지금 승가대학이 있는 데 굳이 강원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싶어. 전통사찰에서 우리가 수행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학공부는 지식의 전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생활하는 과정에서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고, 경하는 사람은 경하고, 생활은 수행이니까 수행생활 중에서 경공부하는 사람은 경공부하고,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참선 공부하는 것, 요 차이거든. 전통사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앙승가대학이나 이런데서 말하는 교육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여. 그래서 나는 전통강원을 그대로 강원이라고 명칭하면은 좋고, 그래야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옛날 냄새가 확 나고 마음이 아주 숙연해 지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그런데 승가대학 하면 벌써 뜬다고. 이상하게 기분이 떠. 이렇게 우리 수행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이상하게 나가서 설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그래 내 느낌으로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년이 넘는 전통사찰에서 그 묵은 향이 베인 법당에 드나들면서 우리가 쌓아 가는 하루하루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즉 교육의 기술적인 방법등을 시대에 맞게 연구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각: 전통강원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비스님: 우선 인성이 달라졌어. 사람들의 근기가 옛날 사람들하고 지

금하고 달라졌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절 집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거기 송광사에서 소리내서 글 읽는 소리가 몇 시간쯤 돼요?

보각: 새벽 간경하고 저녁 간경시간에 의무적으로 한시간씩 합니다. 그 외에 오전 오후 간경은 소리내지 않고 간경하는 시간입니다.

무비스님: 우리때만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어. 그때에는 시간만 나면 서로 읽으려고 애를 썼거든. 서로 읽으려고 기를 쓴거야. 그런데 지금은 근기가 달라져 버린거야.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왔고 세속에서 책을 눈으로 읽었지 소리내어 읽은 법이 없거든. 그렇게 습관화 되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것들이 거의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 그 근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송광사 이번 행자 교육에 가서 보니까. 행자들 평균 연령이 31세 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읽어라 하면 힘만 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키지 말고 눈으로 읽든지 새기든지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이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해야지. 옛날에는 무조건 앉아 읽어서 문리 나도록 했지. 역사 성과 정치적 배경은 무엇이냐? 전체적인 단락은 어떻게 나누며 서론·본론·결론은 어디냐?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교육이 없었어. 요즘사람들은 그런 교육에 발달돼있거든, 그런식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주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란 얘기지. 또한 효율에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거야 예를 들어 정리 같은 것도 요즘 컴퓨터 좋은데 컴퓨터로 정리하지 노트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

는가? 강의 준비 같은 것이야 노트에 적어 오지만 정리 같은건 컴퓨터로 해 놓으면 언제든지 활용가능 하거든 이쪽에 것은 저쪽에서 활용하고 서장은 치문에서 활용하고 치문은 서장에서 활용하고 1-2초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껏 잘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지

진관: 현재 승가 대학원의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과목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무비스님: 나는 맨 처음 초심부터 하자 그랬지 초발심 자경문은 앉아서 하면 1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렇게 다들 짝 훑자고 그랬지. 그런데 교육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교부터 해라 더라고. 사집중강들이니까 사집까지 가르치고 온 사람들이니까 사교부터 하는 것이 좋다해서 사교부터 대교 그다음엔 교육과정에 없었던 것 법화경 전등록 염송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아함경도 조금했고. 강사진은 내 욕심에는 지금 현재강의를 할 수있는 스님들중 최고 권위있고 연세가 많은 스님들 예를 들어 각성스님, 지관스님, 월운스님, 우룡스님 그런 분들을 욕심을 냈는데 그게 안됐어. 각성스님은 가서 배웠지. 부산까지 내려가 유학을 했지. 오래 할 수는 없었고 20일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했는데 좋은 시간 이였어요.

진관: 현재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얼마쯤 있습니까?

무비스님: 12명쯤 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응진: 승가대학원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자격요건등이 궁금합니다.

무비스님: 우선 규정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원에 규정이 있는 데 강원을 나오면 승랍이 4-5년 되죠. 거기다가 한 2년 중강 경험이 있거나 요즈음은 학림이라는 중간 교육 과정에 가서 한 2년 공부했거나 혹 강원 나와서 승가대학 나와서 여기 온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가능 하다고 교육원에 그렇게 되어있어

연일: 율원도 가능 합니까

무비스님: 율원도 가능해 율원도 2년 과정 학림과 같은 격으로 보는 거야. 율원 학림 그렇게 되면 승랍이 6,7년 내지 8년 되면 받아주기로 했어 처음에는 십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칠년이나 팔년 정도에서 받자 그랬는데 강원을 나오고 율원을 나왔거나 학림을 나왔거나 중강을 한 스님이면 돼. 육년이 됐거나 칠년이 됐거나 관계없이 받아야돼 .

응진: 저희 후학들에게 경책이나 평소에 생각 하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스님: 글썽 경책이 될만한게 뭐 있을까? 내가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자문화권에서는 경전하면 한문경전을 대체로 머리에 그린다고 물론 범어가 원전이고 팔리어가 원전이지. 그렇긴 하지만 현재 경의 원형이라고 할만한 것은 사실 한문경전입니다. 그리고 범어나 팔리어로 된 것은 숫자가 불과 몇가지 안 되기 때문에 원전전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거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한문경전을 경전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금 산적

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저술된 한국불교 전서를 수집해가지고 활자화한 것이 고려대장경을 조각했던 일과 맘먹는 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한 양이 수집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인사에 산적해 있는 팔만대장경과 속장경, 신수대장경 그리고 한국불교전서등 이런것을 읽고 해석하고 무슨 뜻이라고 문자화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우리는 좀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경도 하고 강의도 해야지.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도 10년에는 한번 짚은 새로운 것을 번역하고 좀 욕심 같아서는 5년에 한번 짚은 번역되고 요즘 시대 같아서는 1년에 한번 짚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강경만 이라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짚은 새로운 번역이 나왔으면 싶어 많이 익히는 경전들은 최소한도 많은 번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잘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을 제대로 하려면 총무원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어느 사찰의 주지가 원력을 딱 가지고서 그 원력과 중앙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면 모든 사찰행정들이 교육중심으로 밀고나가면 참 좋을 텐데. 운문사처럼 말이야. 이나마도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님들이 강원예 계시니까. 내 욕심은 공부하는 김에 골똥히 해가지고 사장되어가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언어로 되살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멋진 역경을 하고 멋진 설법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양성하는

데 매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각: 아울러 원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스님: 원력이라고 하니까 원력이란 참 상당히 지장보살 같은 원력이 되어야만 견디어 내겠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같은 원력은 원력도 아니야. 내마음에 얽드는 일이 있으면 기분이 상하고 원력이 팍팍 상하는 거야. 원력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끄떡도 안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원력이라고 할거는 없어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부처님께 보탬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 편안하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 욕심이라고 하지 원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고. 조그마한 말사에 교육전문 도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본사는 정치바람 타서 절대 안되고. 말사의 규모는 산도 좋고 앞으로 불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면 좋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성취시킬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서 우리 전통경학을 폭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물을 파놓으면 뭐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도량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즉 강의가 필요하면 강의를 하고 연구발표도 한번씩 하고 가끔 공부한 것을 책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라 할까? 도량이라 할까? 그런 결사 도량이 하나 있었으면. 나도 가서 공부좀 하고 싶다이거지. 그것이 원력이라면 원력이여.

보각: 스님. 그럼 수행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무비스님: 그럼요. 이 불교공부라 하는 것이 뭐 수행이라 해서 특별한

수행이 없잖아요. 본래 경읽고 밥때해서 밥먹으면 그게 수행이야. 우리 절집안에 짜여진 시간 그대로 하는 것이 수행이야. 거기에 따로 뭐가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불할 시간에 예불하고 경보는 사람은 예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경보면 그것도 때론 좋은 시간 좋은 수행이지. 하나 대중생활을 하다보면 최소한의 규칙같은 것은 필요하겠지. 하지만 가능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싶어. 여기 보니까. 이것(서장번역) 하시는 분이 아주 대단해. 건강도 좋지만 새벽 한 두시는 보통이야. 한번 앉으면 며칠을 혼자 공부해. 얼마전 일을 시켰더니 삼일 밤낮을 꼼짝안하고 해 치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예불하라 대중공양 하라하면 힘들지. 그런 사람들은 밥을 갖다, 쥐야 해. '나오지 말고 여기서 먹어라' 그래야 되지. 분위기가 그랬으면 싶어요. 그런 사람이 그 이상 수행을 어떻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용맹정진이지. 방사같은 것도 이제는 세속 생활이 그렇듯이 큰방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잠자는 습관이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다 다른데 그것 다 보장해 줘야되지. 안그러고 '몇시에 꼭 자라. 몇시에 일어나라' 그런 규제를 할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보장이 되고 개인생활도 얼마든지 보장이 되는 그런 도량으로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응진: 귀중한 시간 저희들에게 할애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 대담이 끝난후 스님께서 매철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4)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야할 이유

지운/강주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닫게 하는 因이다.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5) 捨教入禪
 - (6) 信心과 發菩提心
 - 2) '공부' 라는 말의 意味는?
 - 3) 강원에서는 무엇을 主題로 공부 하는가?
 - 4)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야할 이유
 - (1) 교학을 수단으로 깨침을 지향하는 것이 공부의 길이다.
 - ※ (2) 교법학습과 비판적 사유 그리고 체득
 - 5) 看經하는 방법
 - 6) 예불, 청법, 강의, 설법, 참회, 정근, 염불, 공양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2) 교법학습과 비판적 사유 그리고 체득

① 교육과 수행은 다르다.

지적 소유욕을 만족시키려는 것은 탐욕이다. 많이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바뀌는 것이 근본이다. 지금 이 시대는 질적 양적으로 가장 발달

한 교육과 문명의 혜택을 받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오늘날처럼 인류가 불안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의 지표에 관한 울고는 점점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의 최정점인 대학은 어떠한가? 이 역시 지식인을 양산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략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가시적 문제는 사유의 획일화와 집단화를 들 수 있다. 자기를 내세

우는 개인 이기주의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내세우고 표출시키는 集團我라는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를 산출하는 기관이 대학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연히 가문이나 학교, 회사, 종교 등의 특정한 소속 단체의 집단아 현상으로 흐르게 되고, 개인은 다시 이 집단 이기주의를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이제 인류는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다. 함께함은 緣起實相으로 個人我和 集團我가 소멸될 때 가능하다. 그 방법은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강원의 수행체계는 여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강원은 연기실상을 회복하는 戒·定·慧 三學의 수행 체계로 개인아와 집단아를 깨뜨리며 함께 깨달음을 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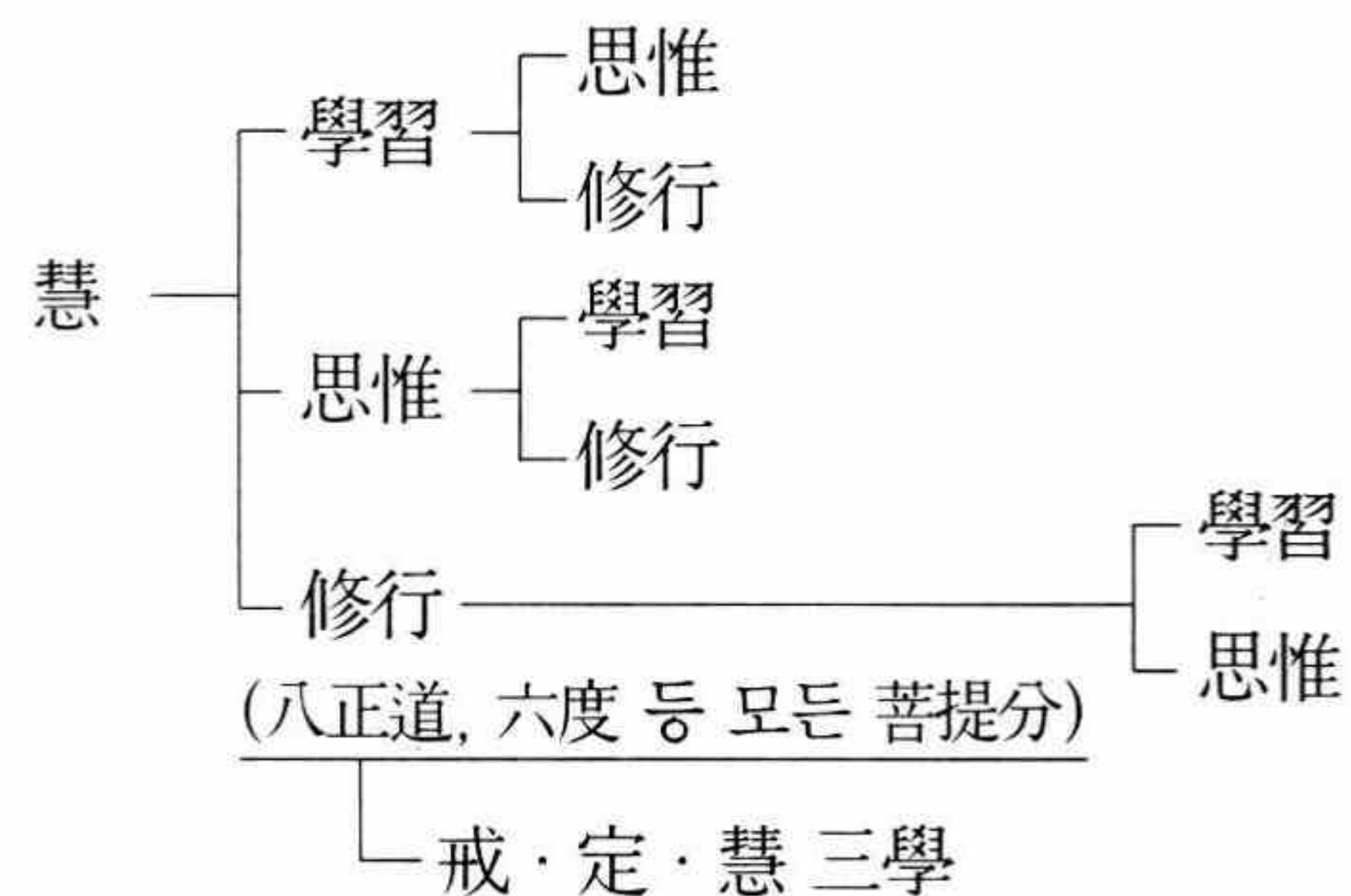
강원에도 교법 학습등 지식의 습득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에서 처럼 일반적으로 학습만이 이루어지고 비판적 사유나 수행이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강원은 교법의 학습이 반드시 비판적 사유와 수행을 동반하기에 교육과 수행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이다. 출가수행자의 願力이 上求菩提 下化衆生인 만큼 수행도량인 강원에서는 교육이 최종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강원의 교육은 수행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부차적인 수단 일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강원의 구조는 수행이 초이므로 강원을 수행도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의 장이며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이며 학생은 지식을 받아 학습하는 피교육자이다. 이러한 주종적인 지식전달 체계하의 대학교육에서 바람직한 비판적 사유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물론 대학에도 비판적 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원에서의 비판적 사유란 대학과는 달리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비판하는 反照的 思惟를 말한다. 이러한 비판적 사유가 없으면 개인아와 집단아로 가는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反照의 성격을 가진 비판적 사유란 반드시 正見을 바로 세우는 학습과 수행을 동반한다. 학습까지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수행은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영역이므로 수행에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을 관조하는 것이지 지식을 저장하거나 지식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관조는 無形의 이미지나 有形의 이미지를 知識化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유형의 본질이 거울 속의 물체나 물 속의 달과 같은 幻임을 여실히 알게 하는 마음이며 또한 그것을 아는 지혜이다. 앎의 내용은 無自性空이므로 그 내용은 늘 같은 하나의 지혜이다. 지식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즉 반야지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반야지혜는 본래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것이어서, 가르쳐서 육성시키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비판적 사유란 정견을 앞세워 교육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교육과 수행이 같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한국불교를 망치는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교법학습과 비판적 사유, 그리고 수행은 강원의 수행구조인 戒·定·慧 三學 가운데 慧學에 속한다. 혜는 事理를 분별 통달하고 결정하며 의심을 결단하는 마음작용이다. 특히 無爲의 空理에 달하는 것이 혜이다. 이 혜에 聞·思·修 三慧가 있다. 교법 학습은 聞慧에 속한다. 교법학습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思慧와 修慧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즉 위에 도표와 같이 학습, 사유, 수행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三慧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간략히 살펴보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아 성냄이 일어날 때 성내는 自我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하는 것이 교법이며 그것을 통해 無我에 대한 지혜를 여는 것이 聞慧이다.

성내는 것은 자아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서는 자아가 없음을 분명히 설하고 있으므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신을 反照하면서 자아가 없음을 분명히 사유하는 것이 비판적 사유이다. 비판적 사유는 반조를 동반하며 교법학습을 통하여 성내는 자기자신을 살펴봄으로써 비판적 사유를 갖는 것이 바로 思慧이다.

비판적 사유를 통하여 자신에게 자아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이 타파되면서 비로소 몸과 마음이 바뀌어 가는 修慧인 것이다.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대학에서는 반조를 통한 비판적 사유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교법은 반드시 반조적 비판적 사유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모든 번뇌와 상반되는 위치에 교법이 있기 때문에 교법학습은 반드시 반조와 비판적 사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조와 비판적 사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법학습은 단순히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체제하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자칫 체득과 깨달음이 없는 빈껍데기 학문이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체득과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법학습이 비판적 사유를 통해야만 체득과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이때 비로소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대학교육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② 비판적 사유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성내는 자아가 없음을 분명히 설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욕을 한다면 치미는 감정에 화

가 날 것이다. 여기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겉은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쉽게 알지만 자기자신의 문제에 부딪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데에 있다.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영혼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물은 쉽게 이해해도 자기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이상학은 형체가 없어져도 형체를 이루게 하는 본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본체는 현실에서 증명 불가능한 것으로 사유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이야말로 幻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근거하여 사유한 결과 자신에 자아가 없음을 알았다면 역시 욕하는 상대방도 자아가 없음을 알 것이다. 따라서 욕을 먹어도 자신은 성을 낼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교법학습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신의 思惟(分別)에만 의지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邪見으로 간다. 사견이란 有無에 대한 斷常二見을 말한다. 반대로 生滅因緣相을 대상으로 하여 (현상태를) 주시하는 사유가 연기로 간다. 그런데 外道는 인연실상을 보지 못한다. 有나 無를 학습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나 무는 현실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사유로만 파악된다. 그러나 인연실상은 전체로 파악된다. 전체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 즉 현실을 의미한다.

부언하자면 연기실상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유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내가 있으므로 나 外의 존재도 존재하고 내가 없으면 외계도 사라진다고 사유하는 이것이 斷見이다.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고 하는 생각을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유는 正思惟가 아니다. 마치 호흡이 나갈 때를 죽음이고 들이마시는 것을 生이라 한다면 生死가 일어나지만, 生死하는 호흡의 들숨이나 날숨만을 본다면 생과 사는 분명하게 나누어지지만 이는 한쪽 부분만으로 본것이고 몸 전체는 살아 있는 연기하는 유기체로서 연기는 변함없이 연기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한 아기의 탄생을 본다면 생

이지만 저쪽에서의 한 노인의 죽음은 분명 死이다. 그러나 많은 아기의 생과 많은 노인의 사를 볼 때는 그 生死는 生만 있거나 死만이 있지 않고 同時이기 때문에 끝남이 없는 연기 실상이다.

③ 正思惟로 들어가는 次第

聲聞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기본사유의 틀을 깨트린 자이다.(聞慧)

緣覺은 기본사유의 틀을 벗어난 사유를 하여 지혜가 열린 수행자이다.(思慧)

菩薩은 성문과 연각의 경지를 거쳐 自覺 覺他하는 자이다.(修慧)

칼라마경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이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사유해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믿음이 형성된다고 설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유에서의 비판이란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조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현실은 고타라고 하신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학습이다.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 보는 것은 반조적 사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타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인생을 고타라고 했기 때문에 고타가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고타인 것이다.

즉 비판적 사유란 그 말이 현실(緣起)에 비추어 보아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반조이다. 확인작업이 생각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사유이며 그 사유를 통해 체득되어 가는 것은 修行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유(返照)는 반드시 修行이 동반된다.

그리고 비판적 사유에는 반드시 正念을 동반한다. 즉 정념은 반조적사유와 다르지 않지만 그것에서 나아가 반조적 사유를 오래지속시키는 힘을 갖는다. 즉 과거나 미래로 흐르지 않고 현재 이순간에 머물도록하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正念은 사유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힘이다. 이 정념에 의

하여 사유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게 겨냥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화하여 사유하거나 이를 근거하여 업사유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思惟는 業이며 곧 분별이며 不滿足이다. 이를 業思惟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正思惟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한 사유를 말한다. 正思惟를 통하여 業思惟를 탈각시킨다. 정사유의 근거는 正見이다. 정견의 내용은 사성제를 잘 아는 것이다. 사성제 가운데 고타는 위대한 스승이다. 고타를 통해 고타가 없는 열반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業思惟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한정이며 분별의 다른 모습이다. 즉 분별은 분별되는 테두리 안에서만의 이해이다. 따라서 佛法을 학습하여 聞慧를 갖추어 자기생각을 부처님의 정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정견(聞慧)에 의지하여 正思惟를 하고 이 정사유에 의하여 思慧가 완성된다. 구체적으로 正思惟는 業思惟인 意業을 다스린다. 意業은 三業의 중심이다. 즉 의업에 의하여 구업과 신업이 일어나므로 의업을 다스리면 口業과 身業도 다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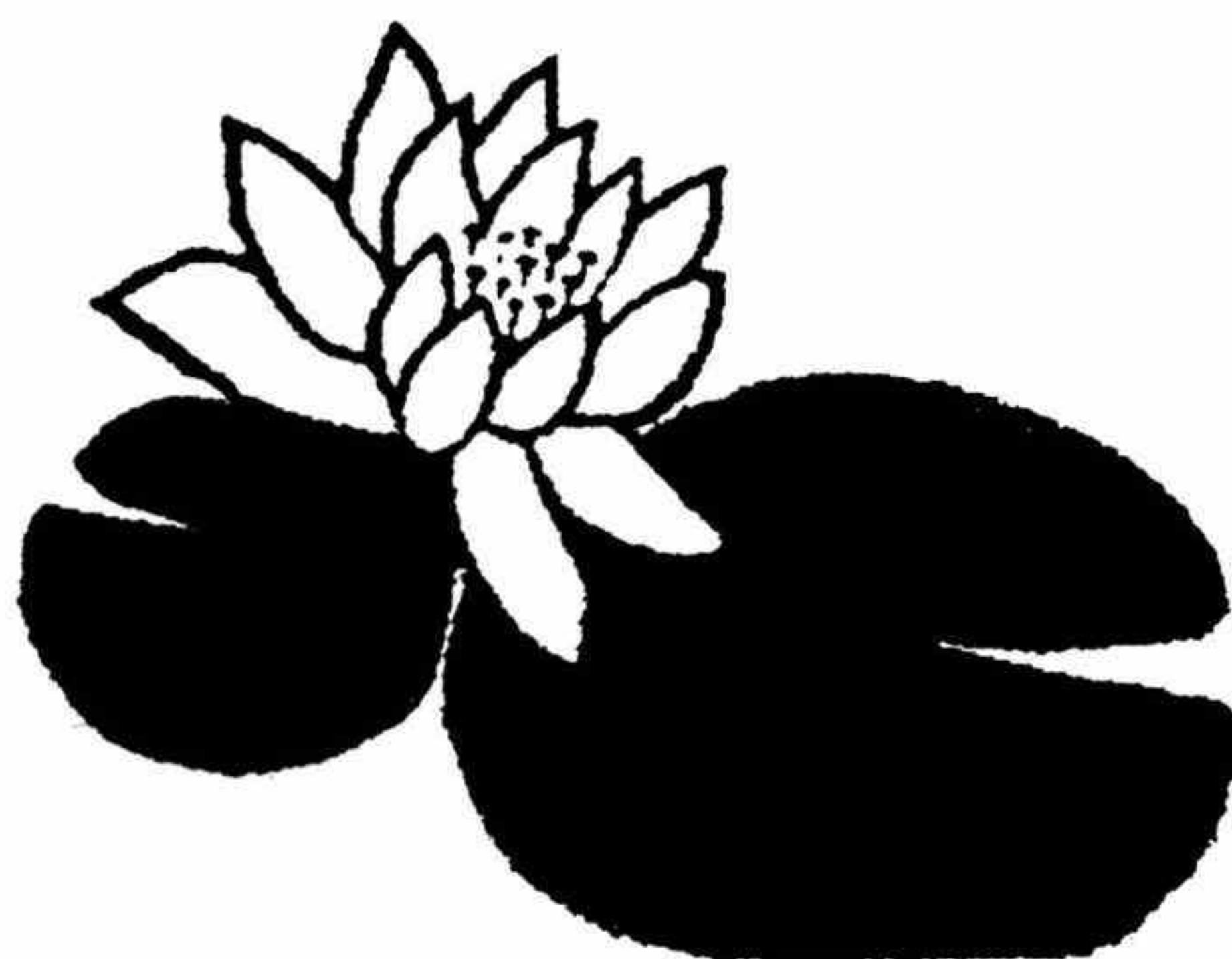
④ 正思惟에서 修行으로 가는 次第

正思惟로 業思惟를 제거하면 業思惟가 소멸되는 순간 순간이 수행이다. 이 과정은 正思惟가 힘을 얻어가는 순간이다. 연기관 함께 함을 말하며 자기 중심적 사유가 사라진 것이다. 즉 사유에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연기적 삶인 것이다. 따라서 正思惟가 힘을 얻는 것은 앎의 흐름(正思惟)을 지켜보는(反照) 것에 의한다. 앎의 흐름에 自我의 有와 자아의 無가 있다. 自我有는 業思惟이고, 自我無는 연기적 삶으로의 전환이다. 연기적 삶이란 완전한 삶이다. 연기적 삶이 드러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가며 삶이 바뀌어 간다. 이것이 수행이다.

지독한 울력

-어느 시인은 '지독한 사랑'을 썼는데

희일



海淸堂'은 어느 메아리일까요?-보내주신 定慧社 16호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海淸堂은 定慧社로 改稱되었음) 지난해 가을 松廣寺에 들러 講主스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定慧社'를 보내 달랬더니 왔더군요. 감사합니다.

1년을 기약한 이곳 파리 吉祥寺 法師 소임을, 연이어 2년째 맡아보면서 받아본 "定慧社"는 鄉愁로 가득 차있습니다. 처음 海淸堂을 만들 때는 여러 말들이 있었으나 끝내 고집하여 만들어 보자며 황무지를 개척하는 정신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엿이 16호를 맞게 되었군요. 처음 海淸堂을 만들 때 유명인사-외부인-속가인의 글은 신지 말고 비록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眞率한 우리의 글을 적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맑음을 느끼게 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져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정 해야 될 것은 修行이며 잡지 만드는 것도 일종의 그 修行을 바탕으로한 表象이 아닌가 합니다.

實相은 밖의 소식이 더 궁금하리라 생각하여 (위대한 착각이겠지요) 파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파리는 요즘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가는 중입니다. 아니 봄입니다. SNOW DROP이란 꽃이 피면 봄입니다. 이 꽃은 노오란, 하얀, 보라 등의 색으로 피는데 吉祥寺에서는 진보라만 피었습니다. 작년에 클로버를 매느라 노오란꽃구근을 덩달아 파 해쳐 버렸는데 올해 그 자리에 새순이 나고 있어 무슨 색깔의 꽃이 필지 기대가 됩니다. 참으로 한가하죠. 파리라든 곳이 이렇습니다. 특별한 관심사가 없으면 그저 오

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꽃밭 가꾸고 집 가꾸고 방 가꾸고 마음 가꾸고

定慧社 16호에 실린 사진을 보고 눈꽃 속에 있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속에 있었다면 새벽에 제일먼저 그 눈길 밟고서 맑은 달을 쳐다봤을 겁니다. 이곳 파리는 눈이 귀합니다. 북위 46도에 위치해 있는데 눈은 몽블랑이나 그밖에 산악지대에 가야 볼 수 있을 정도이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스키나 기타 위락시설은 滿點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스키에 관심 있는 분은 방문하세요. 이곳에서 가끔 萬行을 겸한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남쪽 프랑스 지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해마다 겨울이면 미모사축제의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랑색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미모사가 미



스트랄 (봄이면 지중해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즉 봄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란 일품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인은 집이 없고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일년의 여유자금을 모으며 그 바캉스를 즐기고는 또 한해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社會保障制度가 정착되어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보장을 위해서는 50%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의 삶은 흥청망청 할 수 없고 계획적이고 절약하는 것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들의 儉約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儉約은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돌이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별하나 뜨면 그별을 보는 시각은 각각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意識은 상당히 深奧한 佛敎的 思想을 내포한 서양의 現代文明社會 같지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찌

다 빛을 본 것인지 아니면 빛을 본 기억같은게 떠오른 듯한 未開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너무 많다는 것을 自認합니다.

지독한 울력이란 제목에 대한 所見을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이 곳 프랑스의 삶은 참으로 지독한 울력입니다. 달뜨면 애기 하나 먹는 문둥이도 아니고 學位따고 이름 높아지는 名聲도 아니고 다만 살다가 가면 그만인 지독한 울력입니다. 이질적인 文化와 風土등의 어려움은 각오하고 왔으며 또한 많은 留學生들도 느끼는 것이기에 堪耐할 수 있었으나 修行者로서 제

일 어려운 점은 大衆들과 함께 琢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혼자만의 삶, 그것은 거문고의 줄을 스스로 調律하지 못한채 나태함과 我相 속에서 再發心을 반복하는 小輪廻였습니다. 내가 곧 修行者라 自照한다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고독은 당연하겠지만 자신을 비추어볼 거울이 없기에 현재의 삶을 類推할 수 없고 그 속에서 현실속의 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함이 참으로 힘든 울력 이었습니다.

감로암 가는 대숲길을 작년 시월에 걸었습니다. 아쉬워서 파리에 오기 며칠 전에 한번 더 걸어보았습니다. 대잎들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가는날 또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세상이 있겠지요. 그해 겨울 눈 쌓인 조계산 정상을 억지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서 보니 소나무에 가려서 松廣寺 경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건가요? 확실히 하자면 더 어려워지는 것 모를 일입니다 그려!

파리는 봄입니다.

— 미모사 핀 마을을 다녀온 저녁에 회일 승掌

※ 회일스님은 정혜사의 전신인 해청당의 창간 멤버이시고 현재 파리 길상사에서 법사 소임 중입니다. 이 원고는 지난 2월에 보낸 주신 것입니다.

동심



정산(定山)/사집

어린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웃는 어린이 얼굴은 꼭 부처님 같고 큰 스님 같기도 하다. 그래서 천진불이라는 말도 있는가 보다. 바로 아이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이다. '티 없고 순수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동심(童心)이라고 한다. 나는 현재 송광사에서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소임을 맡고 있다.

이제 지난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서의 일들을 몇 자 적어볼까 한다. 우리는 지난 1997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박 4일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있는 무량사 동심원(無量寺 童心院)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었다. 수련회 장소인 동심원은 내가 출가전부터 인연이 있는 곳이라 섭외에 어렵지 않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첫 날 아침 버스로 마을을 돌면서 아이들을 태우고 10시쯤 동심원으로 출발했다. 나는 버스안에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러 가는 것'이라고 수련회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사실 이번 수련회에는 전보다 강도 높은 교육을 준비했다.

강도 높은 교육이란 우리 스님들이 행자 교육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말한 것이며, 예를들어 차수, 안행(보행시 5명이 한줄로 보행하는것), 바루공양, 묵언 등등이다. 예상보다 1시간가량 늦게 도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빨리했다. 입제식에서 수련생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면서 별점제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위에서 말한 차수등의 주의사항 위반시 별점이 주어져서 그 별점에 맞는 참회가 있다. 별점이 5점이면 108배, 10점이면 200배 등으로 최고 별점25점에 500배이고 별점이 그 이상일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참회가 주어진다. 그 중 바루공양시 바루를 일일이 검사해서 고추가루 하나라도 나오면 별점이 주어진다. 내용은 가장 큰 부담과 동시에 긴장이 되었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첫 공양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별점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6살짜리 어린이도 예외일 수 없었으며 어리다고 봐주면 수련회가 잘 이끌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해야만 했다. 예를들어 공양시 묵언은 기본이며 묵언을 어길시에는 공양을 먹이지 않고 내쫓는다. 이

번 수련회에서도 한 명의 어린이가 공양시간에 쫓겨나는 일이 생겼다. 물론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시범 케이스다. 한 아이로 하여금 공양시간에 말 하는 아이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의하게 되었다. 약간 가혹한 면도 없지 않지만 단체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다. 공양후 저녁예불과 108배를 하고 반별 구호및 반가, 반기 만들기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각자 머리에서 이것 저것 짜내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하다. 발표시간에 보니 연꽃반과 육바라밀반으로 발표하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고, 기특하기도 했다. 발표 후 세면을 하고 난 후 취침전에 '소공사'라고 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일의 일정 같은 것을 알려주었다. 첫날 별점 5점이 넘는 아이들이 3명이 나왔다. 이 아이들은 내일 108참회를 하도록 일러줬다. 둘째날 새벽 4시 기상을 해서 세면후 바로 새벽예불을 하고 참선시간이다. 비몽 사몽간에 조는 아이도 있고 결과부좌를 한 아이, 다리가 아파 얼굴을 찡그리는 아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아이등 가지각색이다. 참선후 '금강선법'이라는 송광사에서 스님들이 했던 체조를 하고 아침공양후 동심원 뒷산을 포행한 후 울력으로 청소를 했다.

첫 시간은 주지스님 법문 시간이다. 나는 어릴때 주지스님이신 일로(一露)스님으로부터 어린이법회에 나가서 배웠기 때문에 주지스님의 교육방법이 몸에 익숙해져서 나의 교육방법도 비슷했는데, 그 교육방법은 잘 할때는 잘 해주지만 잘 못했을 때는 벌을 준다. 요즘은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것이 크게 잘못 되었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데 벌이라는 방안을 사용했다. 주지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찬불가 연습 시간이다. 율동과 함께 하는 찬불가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이다. 나도 같이 따라 해보니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재미 있어 한다. 찬불가 시간을 마치고 사시 예불과 사시 공양을 마친 후 자유시간 및 공놀이를 했다. 농구, 피구, 배드민턴등을 하고 난 후 레크레이션 시간은 자원 봉사자들의 준비와 진행으로 마당에서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모두 움크리고 있었다. 나는 연수회에서 배운 박수놀이를 이 기회에 활용 했다. '잼잼 짹짹 곤지 곤지 짹짹 도리도리 짹짹 쿵 쿵 짹짹 잼 짹 곤지 짹 도리 짹 쿵 짹 잼 곤지 도리 쿵 짹'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조금빨리 빨리 아주 빨리 그리고 반별로 어느반이 잘하나 식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 주어 나도 기분이 좋았다.

레크레이션은 상대방 풍선떨어뜨리기, 밀가루속에 사탕먹기, 숫자게임등을 했는데 아이들의 요구로 밀가루속에 사탕먹기는 스님과 선생님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스님과 선생님들의 밀가루 묻은 얼굴을 보니 고소해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내가 준비한 교리공부시간이다. 처음에는 설화를 이야기 해주고 그속의 불교교리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갔다. 그중 불교란? 이라는 주제로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가르쳐 주었다. 내용인즉 '불교란? 솔직한 종교, 실천하는 종교, 인과 응보의 종교, 자리아타의 종교입니다.' 등이다. 보통 교리시간은 따분해 하는데 의외로 눈이 초롱초롱하고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어서 아이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녁에는 담력훈련이라고 해서 야산을 넘어 흥가에 들어갔다 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귀신분장과 효과 장비, 하이라이트인 흥가에서 프로그램등을 제법 잘해 놓았다. 아이들 5-6명과 선생님을 함께 1조로 4팀을 구성하여 십분간격으로 출발시키고 절에서 기다렸다. 1조부터 도착하기 시작해서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아이들은 재미있고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신나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놀라서 울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놀려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이튿날 어제 담력훈련의 피로를 감안해서 기상시간을 한시간 늦추었는데 더 잔 것인데 대해 만족해 하는 표정들이다. 오전에는 교리공부, 찬불가, 사찰습의, 사시예불을 하고 오후에는 실내 레크레이션, 동시짓기, 반별만들기와 장기 자랑 연습등의 프로그램등을 진행했다. 저녁 공양후에는 반별 장기자랑 연습을 한시간 더 하고 반별 장기자랑과 촛불정진을 하였다. 장기자랑은 오후부터 연습한 춤으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막상 하니까 모두 잘 했다. 그 중 한아이의 춤은 우리 모두를 웃음속으로 들어가게 할만큼 잘 추었다. 아이들의 춤이 끝나고 선생님과 스님들이 춤을 추게 되었는데 호랑이 스님의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일부러 준비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모두들 나와 각자의 춤솜씨를 자랑했다. 주지스님께서 춤자랑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촛불정진은 모두 초에서 초로 불을 부쳐 약사여래불 석상이 있는 곳까지 정근하면서 걸어갔다. 이곳 약사여래부처님은 영험이 있다

고 알려져서 아이들에게 한가지씩 소원을 빌라고 했다. 나도 한가지를 빌었다. 우리는 정근이 끝나고 발원문 낭독과 '사랑으로, 우리의 소원등'의 노래를 부르며 내려왔다. 내일이면 집에가는 날이라고 좋아하는 것 같다. 그동안 힘들었을 것이다.

마지막 날, 오늘은 푹 재웠다. 7시30분 기상, 짐정리 및 청소를 하고 아침공양후 소감문 작성, 그리고 수료식 및 수계식으로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발을 올렸다. 아이들은 그 동안 정들은 자원봉사 형, 누나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서로 주소를 주고 받는다.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아이들은 힘들었지만 좋았던 모양이다. 내년 여름 수련회도 이곳에서 하자고 한다. 나는 우리가 수련회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집에서도 배운대로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이니까. 순천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각자 집에 바래다 주고 3박4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처음 해보는 수련회라 신경도 많이 썼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마무리 된 것 같았다. 뒤에 들은 소리로는 자원봉사 학생들은 버스가 떠나자 모두 울었다. 짧은 기간동안에 정이 그 만큼 많이 들었던 모양이다. 수련생인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쉽다고 했다. '그 마음이 바로 동심(童心)이 아닐까?' 때문지 않은 순수함,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수련회에 도와 주신 동심원 주지스님, 공양을 해주신 보살님들,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자원봉사 파라마타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 법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의 斷想



진관(眞觀)/치문

또 봄이 왔습니다.

黃嶽山 中庵에서 보냈던 봄은 녹음이 아직 이른 산아래에서부터 하이얀 산벚꽃이 군데군데 피어나 한줄 두줄 等高線을 그리며 시작되었는데 曹溪山은 羽化閣 아래 시냇가에서 피어나는 푸르름이 산아래 마을로 봄을 전합니다.

春來無處 不開花 (봄이 오니 꽃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계절의 因緣을 맞이한 봄은 空間을 가리지 않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願들의 모양에 맞추어 봄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따스함, 노오란, 포근함 등의 단어의 나열보다는 5년전 봄날 노스님의 만남에서부

터 시작된 出家의 삶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꿈꾸며 松廣寺 講院 緇門반에 방부를 들인 지금까지의 삶이 返照속에서 사뭇긴장이 도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5년전 봄날 출가를 결심하고 直指寺 中庵을 찾아갔을 때 일주문을 대신해 늙은 산벚나무 두 그루에는 꽃이 만발하였고 그 아래 흰수염을 늘어뜨리신 노스님과 시자 스님이 봄나들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받으신 노스님께서는 벚나무를 보시고는 “좋다, 좋다” 하더니 소나무를 쳐다보시고 “소나무도 좋다 좋아” 이젠 하늘을 보시고도 또한 “좋다 좋다” 하셨습니다. 그 옆에 시자 스님도 마냥 “예, 예” 하고 있었습니다. 산 길

한시간을 걸어온 저에게는 기쁨 반 허탈 반으로 마냥 웃기만 했던 中庵의 첫날 지금 돌이켜보면 저 또한 큰스님이 주인공인 대본을 하나쯤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행자 생활, 수계, 노스님 시봉을 하면서 느낀 中庵의 삶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 담아 갈 수 있는 큰 바다와 같았습니다. 일반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까지 마지막 생을 정진으로 보내시겠다는 노스님께서는 89세의 세수에도 불구하고 대중스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참선과 독서로 보내시고 아직도 오신체는 물론 탁하다며 참기름도 안 드시는 노스님의 行이 있었기에 스스로 풀어주시는

偈誦과 經句보다는 그 뒤에 품어 나오는 미소가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지금도 몇 가지 떠오르는 一話가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사제 스님과 잡초를 뽑고 있는데 노스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런저런 閑談 끝에 노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스님 잡초에는 佛性이 있습니까?”

“있지.”

“그런데 왜 뽑으라 하십니까?”

“잡초를 뽑는다고 佛性이 없어지냐? 生命(佛性)은 우주의 하나인 法이여.....”

또 하루는 지리산에서 낫선 무당이 사진과 동자상과 자물쇠등을 노스님께 보내셨습니다. 소포 오신 것을 알고 계신지라 몇 가지를 빼고 동자상과 편지만을 노스님께 보여드리며 “무당이 보낸 겁니다. 제가 알아서 치우겠습니다.” 고 말씀드리자. “놔둬라. 세상은 뱀도 개구리도 같이 살아가는 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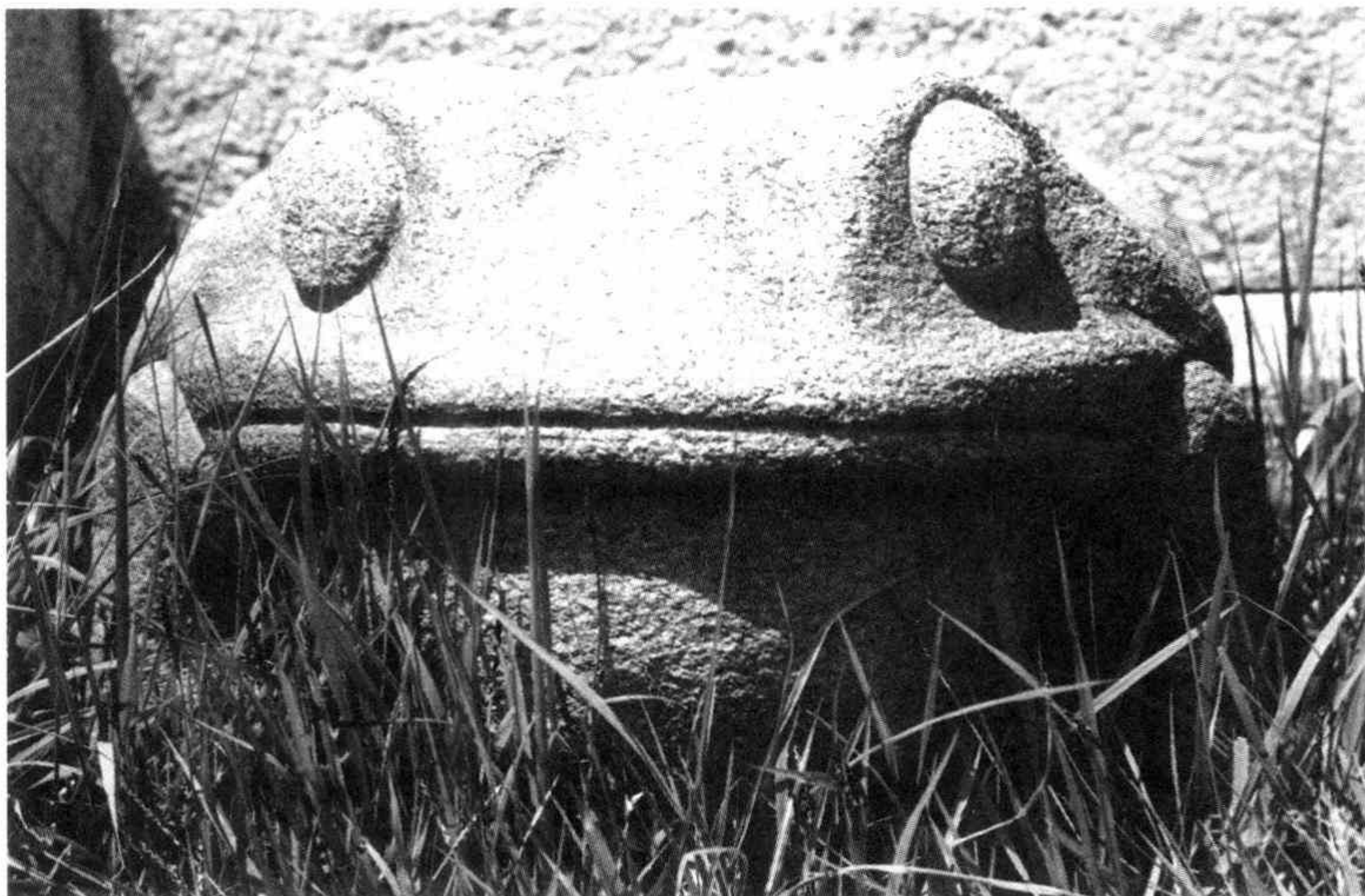
한 번은 노스님 제자 되시는 스님이 노스님께 간청하기를 마지막으로 後學들을 위하여 책을 한 권만이라도 내달라고 부탁하

셨습니다. 노스님께서는 “如來께서도 자취를 남기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시며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一連의 기억들 속에 시자 생활 3년을 보냈습니다. 노스님의 見處와 思想을 초심자인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法門 속에서 누누이 강조하신 生命은 하나라는 말씀도, 無門關 6年 結제 修行도, 大講伯의 모습도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言行之 一致가 시자를 편하게 해주었고 시봉들에게까지 폐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3년의 시자 생활동안 계속 존경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봄은 黃嶽山이 아닌 曹溪山에서 맞이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눈에 익어지고, 黃嶽山의 산마루가 아름다움으로 다가설 때 아직은 外形을 추구하는 學人

인지라 정체성을 핑계로 黃嶽山을, 노스님을 떠나 曹溪山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中庵에서의 삶이 어떻게 자리매김 될지 알 수 없으며 많은 변화 속에서 내자신이 초발심을 지켜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수행을 찾아 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부처라면... 부처님께서도 몸소 6년 苦行을 하셨는데’ 라는 기준에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노스님이 계셨으면’ 이라는 좀더 가깝고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修行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노스님께서는 아름다움이란 아는 것(알음), 답다.(다움) 즉 知慧와 行의 겸비가 아름다움이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講院 생활이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길 自願해 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연각(然覺)/대교



(1) 쌀 한 톨이 준 의미

처음 출가하여 공양간에 소임을 맡던 날, 쌀통 위에 놓여있던 편셋을 보았다.

쌀을 씻을 때 그렇게 조심했건만 일을 끝내고 보면 꼭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몇 알의 쌀알들.

대리석 타일 틈에 끼여 있는 녀석은 편셋이 아니고는 줍기 어려웠다.

더욱이 행자들을 긴장하게 했던 것은, 쌀 한 톨이라도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발견되는 날에는 소임 보는 행자는 쫓겨난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혹시나 바닥에 숨어 있는 알갱이가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으며, 혹시 밥이 남는 날에는 설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되기에 대중의 이동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하루 일과중 가장 고된 것이었다.

‘왜 다른 것보다 유독 쌀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더 비싼 물품에 신경을 쓰면 더 효과적일 텐데!’ 라는 나름대로 불만이 쌓이던 어느 날 쌀을 줍는 손길에 문득 묻어나는 생각이 있었다.

‘이 작은 쌀한톨도 이렇게 소중한데 다른 물건은 더 말할 나위 없지 않은가!’

그날 이후로 생각은 바뀌어졌고, 어떤 물건이든 사용할 때 헛되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었다.

물론 쌀이 제일 귀중하던 시절을 사셨던 어른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것만은 아니었다. ‘하나가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출가하겠다고 절집에 들어온 행자들은 어느 부분인가 나

름대로 아मान에 쌓여 있게 마련인데(?), 예외가 아니었던 내게도 이 작은 쌀한톨은 인식을 전환하게 해준 좋은 방편이 되었다. 쌀한톨의 귀중함 속에서 모든 것을 헛되이 쓰지 않는 철저한 수행자의 틀을 마련해주려는 어른 스님들의 숨은 의도를 나름대로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다.

(2) 작은 잘못 큰 꾸지람

“와르르 쿵광광……”

새벽 3시, 도량석 목탁이 울리고 불이 켜지기 무섭게 고요함이 깨진다. 선잠은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놀란 마음에 살펴보니, 선반에 놓여있어야 할 발우(스님들의 공양그릇)들이 큰방 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것도 어른 스님들의 발우가 모두 떨어져 있다.

어찌 된 일인지 둘러보지만 아

랫반 한 스님이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발견될 뿐 아직도 어찌된 일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정적을 깨고 찰중스님이 묻는다.
“왜 선반을 건드렸어요?”

“어제 안경을 잠결에 챙겨두었는데 선반에 놓은 것 같아서……”

대답을 듣고서야 무슨 일인지 짐작 할 수 있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안경을 찾는다고 선반을 잡아당겼는데 선반이 흔들리면서 발우들이 떨어져 내린 모양이다.

“발우 확인해 보세요”

찰중스님의 말에 치문반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발랑을 풀어 발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불 위로 떨어진 발우들은 멀쩡했지만, 아뿔싸! 제일 윗자리에 앉으시는 큰스님 두분의 발우만 깨어져 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질 즈음 찰중스님은 “아침 예불 끝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며 일단 상황을 정리했다.

예불하는 동안 그 생각뿐이었던 듯 찰중스님은 예불을 마치기 무섭게 그 스님에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큰스님 두분을 차례로 찾아 뵈고 사실을 말씀드리라고 했다. 그 스님은 어른스님들께 사실을 말씀드리러 가고, 아침 간경시간이 시작되었지만 다른 스님들의 마음은 모두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간경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건의 주인공이 돌아왔다.

당장 상상도 못할 큰 일이 벌

어질거라고 생각했기에 귀를 쫓긋했지만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에 모두들 미심쩍어 했다.

발우는 스님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물품 중에 하나이며 오랜 수행과 함께 한 것일진대 별 말씀 없으셨다니 의아해 할 수밖에.

마침 여분의 발우가 있으셨던지 새 발우를 보내셨을 뿐이었다.

드디어 아침 공양시간이 다가오고, 학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아직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날, 평소와는 달리 다른 스님들 보다 먼저 들어오신 두 스님.

먼저 들어오신 스님부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한 말씀하신다.

“오늘 큰 액 땀 하나 했구나!”

“내 웬지 발우하나를 미리 준비하고 싶더니만 오늘 같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네.”

여운을 남기시고 서로 바라보시며 웃음을 한 번 나누시는 것으로 끝이었다.

학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으신 여여한 모습!

공양시간 내내 말할 수 없는 무언이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오히려 큰일을 저질러 놓고 당황해하고 있는 아랫사람을 위하여 침묵해 주시는 모습에서 어른 스님들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있었다.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겨주시

는 넉넉한 자비심.

하지만 작은 일에 실수를 그냥 넘기시는 일은 없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때론 타성에 젖을 수 있게 마련인데, 그렇게 정신들이 느슨해졌을 때는 공양시간에 발우퍼고 싸는 소리, 찬 그릇 부딪치는 소리 등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짐짓 화를 내시며 지적해주시고, 혹 법당에 놓여 있는 좌복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불호령으로 소임자를 엄하게 꾸중하시고…….

서구적 가치관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사고가 깨뜨려지는 순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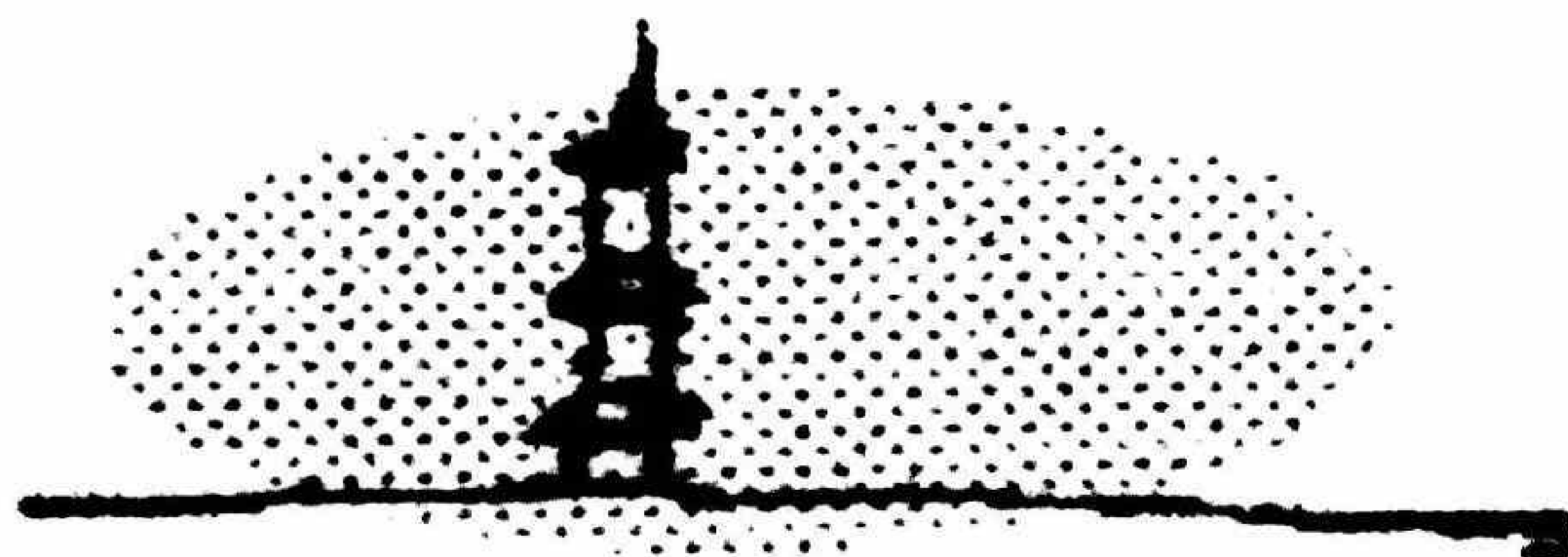
때론 큰 잘못임이 분명한데도 관대하게 처리하고, 아주 사소한 일 같은데 오히려 엄하게 경책을 하시는 숨은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후학의 수행을 돕고자 하는 배려임을 확실히 안다.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따스함. 잠시도 정신을 놓지 않게 적절히 긴장감을 조성해 주시는 대자비의 마음. 진정 필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임을 알려주시려 함이 아닐는지.

오늘도 어른 스님들의 이러한 따스한 마음을 믿기에 따끔하고 호된 질책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자 애쓰며 나자신을 돌아보며 생활해 간다.

내가 사는 송광사 강원

응진(應眞)/사교



1. 강원에 들어온 이유

사실 쫓겨서 들어왔다. 대부분 암자에 계시는 스님네들은 사미계를 받고 바로 강당에 가기보다는 은사스님곁에서 시자소임을 두해 짬 살다가 들어오기 마련이다.

나는 사미계를 받자마자 지옥같은(?)소임과 운력 그리고 삼시에불을 올리는 시간만 얼추 계산해도 대여섯시간인 우리절을 어떻게 벗어날까 목하 고민중이었지만 은사스님을 비롯한 사형스님들의 두해 짬 당연히 우리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빈틈없는 생각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내가 지니고 있는 논리는 너무도 허약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의외의 상황들은 같이 계를 받았던 세분 스님들 중 누군가는 강당에 들어가게끔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절에서 그리 필요치 않은 나를 방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어리석은 이놈은 그런 방출을 내심 기다렸기에 아쉽기도 했지만 홀가분하였다.

2. 하필이면 송광사 강원이나

해인사야 누가 뭐래도 세상스님네들이 알아주는 강원이고 동문스님네들도 워낙 많다보니 알게 모르고 작용하는 장점들이 많겠지만, 사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해인사보다 송광사가 조금 편하지 않겠냐는 알팍한 계산과 엄격한 율을 강조하시는 은사스님의 암묵적인 강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사실 나는 계율과는 친하지 않다.

출가한 사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하고 또 공부가 익어가다보면 지키지 않고 싶어도 저절로 지켜진다지만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오죽 했으면 한국불교의 문제점이야 많고 많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스님네들이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것이라 세상사람들이 말하겠는가!

이런 나의 실상을 알고 계셨는지, 은사스님께서서는 유독 송광사강

원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약 100여일을 이곳 송광사에서 행자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이라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것처럼 나 또한 출가하기 위해 처음 들어섰던 절이었고 행자시절을 이곳에서 가름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서라도 송광사 강원은 반드시 내가 왔어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3. 가장 열심히 산다는 강원

20여명에 불과한 송광사 강원이 몇 년사이 70여명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된 계기는 승보 종찰이 지닌 송광사의 청정함과 강주스님을 비롯한 강사스님들의 성실함, 그리고 다른 강당에 비해 여법하게 산다는 송광사강원에 대한 호감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세상은 한치앞을 예상하지 못할만큼 빨리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속논리로는 이해가 되지않는 집단이 스님네들 집단이

지만 그 중에서도 송광사 스님네들의 고루함은 보는 사람이 답답할 지경이다.

몇 년전 강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스님네들이 일년에 한번씩 가지는 행사인 전승련학인대회의 메인 이벤트인 축구 경기를 위해 어떤 강원은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한다는지, 혹은 우승을 못하면 단체참회를 한다는지 하는 얘기가 스님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었고, 아무리 스님네들이라지만 운동경기를 하자면 승복보다야 운동복이 편한 법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여법한 것이라 할 수 있어 다른 강원에서는 이미 운동복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송광사 강원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 전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가장 윗반인 대교반에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했던 모양이다.

어느 집단에서나 고지식한 사람은 있으며 그들이 일으키는 해프닝은 그저 일과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예사이지만 당시 사교반의 율사 스님이라고 불리는 몇몇 스님네들이 강력한 반대와 대부분 스님의 동조로 결국은 예년과 다름없이 승복을 입고 아랫반은 거기에다가 행전까지 두르고 축구경기를 했다니 답답함도 이정도면 세간에 화제가 될만도 했다. 어찌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이정도인데 계율에 관한 다른 부분들은 어느정도인가는 쉽게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4) 위기의 송광사 강원

얼마전부터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소리가 있다.

어느 반 모스님이 다른 강원으로 옮겼고 모스님은 조만간 옮길 것이

라는 것이다. 어떤 스님은 해제 후에 은사스님과 상의한 후에 가능하면 옮기겠다고 한다.

지난해 동안거는 평소 강당의 분위기와는 다른 기운이 그득했고 다들 지대방에서는 심심찮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 하곤 했다.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세상에 원인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입만 열면 인과를 얘기하는 동네에서 도대체 이유를 알수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충 강원스님네들이 분석한 원인은 이런 것이었다.

첫 번째 송광사 강원이 수용할 인원을 훨씬 초과했다는 것이다.

송광사 스님네들이 성격이 부드럽다는 것은 대부분 스님네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에는 적절한 외부여건도 크게 작용하는 법이다. 높이를 다투지 않은 조계산의 유연함과 평지형 사찰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 스님네들에게 일정부분 작용함은 연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부정할 바는 아닐 것이며, 또한 부드러움은 잔잔한 흐름속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유지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사중이 한창 불사를 진행중이라 방사형편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좁은 지대방은 편안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몇가지 짐만 두면 앉을자리가 없었고 수각장의 불편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외부조건은 스님네들의 정진에 장애가 되었고 아직은 대부분 초심자인지라 효과적으로 회광반조하며

다스리기 보다는 외부에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감은 은연중 누군가가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고 만다는 극단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강사스님네들의 요구를 학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공부시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시킬까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들이야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업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배울까 요령을 피우게 마련이다. 이런 부분은 출가한 스님네들도 예외는 아닐 듯 싶다.

스님으로서의 기본인 예불 공양 윤력은 말할것도 없고 간경까지도 일일이 지도를 하시는 강사스님네들의 자상함(?)과 다른 강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법문답이라는 과정을 두어 매철 시험을 치는 것이 강당스님네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어찌되었든 머리각은 스님네가 무슨 시험이냐는 반발감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필요한 과정이고 반드시 학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굳이 이런 불편을 감소하면서 송광사강당을 다녀야 하는가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사중의 적절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송광사는 승보종찰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도량이다. 이곳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더욱이 강원학인으로 4년을 보낸다는 것은 평생을 기억하고도 남

을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강원에 비해 사중의 적절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다른 절에 비해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즘 강원의 위상이라는 것이 사찰의 장엄용으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고 비구계를 수지하지 않은 사미 스님네들은 강원 이력을 마쳐야 됨이 필수이지만 도제양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찰에서 강당을 확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곁도는 강원학인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게 강당을 옮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송광사 사집반이 깨졌다는 소문도 났고, 사교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리고, 치문반은 방부대기자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저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대교반 스님들이나 강당을 지킬거라는 소리도 있었다.

어떤이는 송광사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의도로 퍼트렸다고도 하고, 혹은 단순히 과장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소문의 근원지는 송광사 강원학인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과 개인, 반과 반사이의 불신이 내놓은 어이없는 결과인 것이다.

5)그래도 남아있는 스님들

은근이 은사스님에게 운을 떼기도 하였고 몇번이고 짐을 싸고 강당을 옮기려 했었다. 한 삼년쯤 한 곳에 살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같고 다른 강당의 분위기가 어찌되었든 잘살 자신이 있기도 했지

만 결국 난 송광사강원을 떠날 수 없었다.

이유는 한가지이다.

내 자신의 근기를 잘알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부분 출가하는 스님네들의 평균연령은 삼십가량이다.

적은 나이는 아니다. 한 삼십년쯤 살벌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왔다면 몸에 베인 세속의 습은 일이년의 절생활로는 털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저 머리깎고 옷만 바꿔 입었지 사고방식이나 습관은 아직도 세상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삼십년쯤 몸에 베인 온갖 습들이 간혹 요동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쉽지않다. 그럴때면 나는 죽어라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습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절집을 벗어나기도 했다. 그저 오랜 절생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뼈를 깎는 정진과 주변의 여건이 갖추어 져야만이 해결되는 것이다. 송광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다. 답답하기도 했고 지겹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나를 침범하는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부터 송광사 강당생활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고 열심히 살아가는 도반스님들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었다.

수행이 본래 가지는 의미는 바꾼다는 뜻이다. 자신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백천간두의 불퇴전의 신심도 있어야 하지만 지도해주시는 어른 스님과 탁마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에 송광사를 떠나지 않고 답답할만큼 고루하지만 나름대로의 수행에 매진하는 도반들과 강원은 수행도량임을 외롭게 주장하시며 함께 실천

해 주시는 강주스님의 강사스님들, 또한 은연중 승보종찰로서 송광사가 가지고 있는 묵직한 고요함은 외부에 반연하기 쉬운 내 근기를 가라앉혀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 길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송광사에 있다.

6)내게 송광사 강원은

해제를 하고 은사스님께 인사를 하러 가면 늘 스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해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다. 늘 부끄러워 '공부는 무슨 공부' 하며 머리를 극적거리면 스님께서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며 그 얼굴을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출가전까지 죽을등 살등 마셔대고 피워대는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얼굴이 조금이나마 맑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선택한 출가와 송광사 강원입방은 평생에 몇번 없는 탁월한 선택임에 만족하곤 했다.

해제랍시고 아는 스님네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따금 탁한 음식이라도 먹으며 지낸 보름가량의 방학후에 내 얼굴을 보노라면 절로 짜증이 나곤 했다.

그렇게 몇번의 방학을 보내고 또 몇번의 결제를 나고 지금쯤 중물이 들을 법도 한데 세속의 찌든 때가 내겐 너무도 많았는가 늘 이웃이 생경스럽다.

농담처럼 도반스님과 이런 얘기를 하곤한다.

"송광사 강원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강원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쯤 환속했을거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내게 송광사 강원은 이런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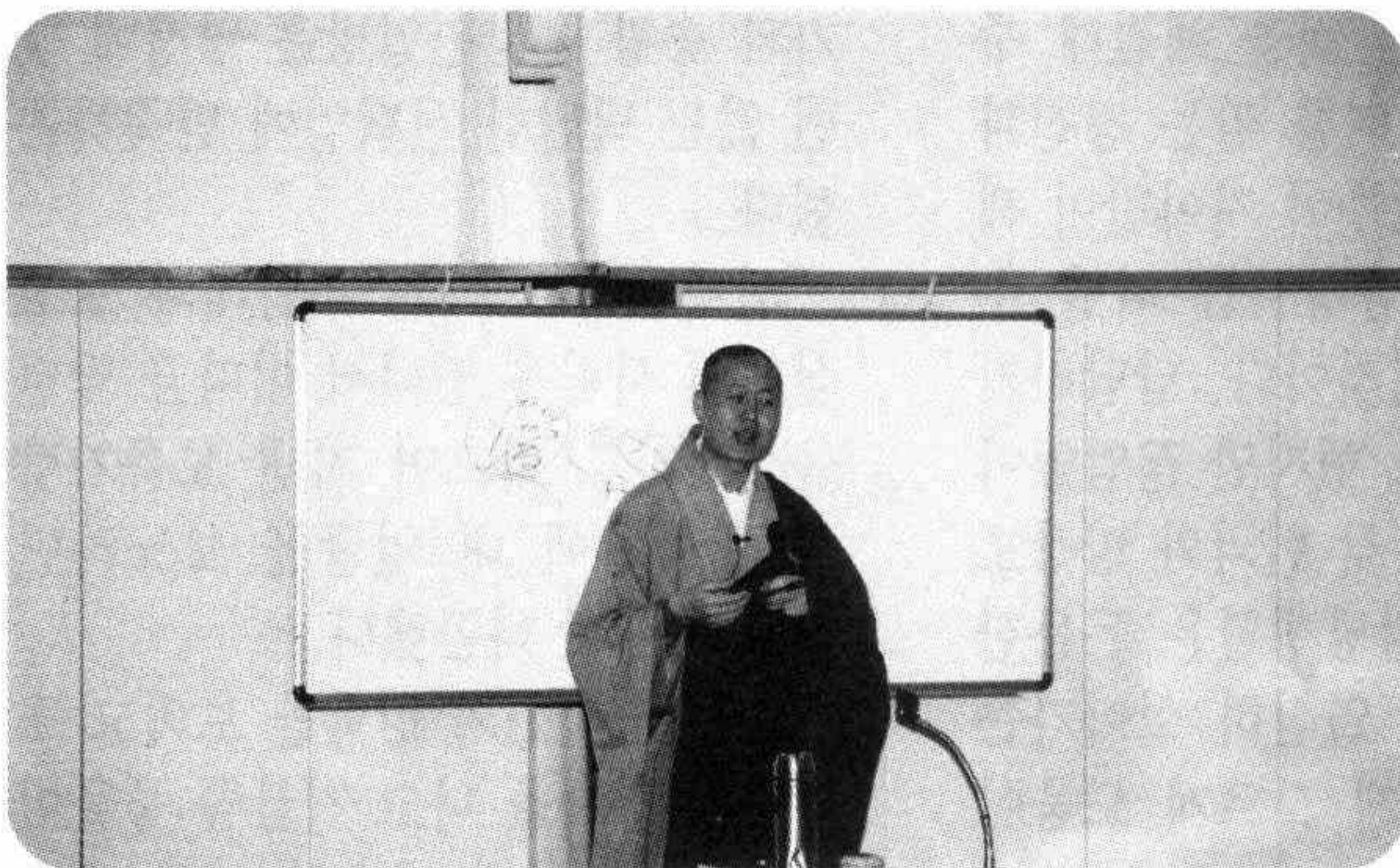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2월10일 제9회 강원 졸업식

좌로부터 도선, 연수, 종지, 아도, 본연, 송원, 도강스님께서 4년간 경.논등의 수학과 승려로써의 제반 위의를 습의등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의 일보를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불하십시오".



2월21-25일 인도철학 개론 특강

수년간 인도에서 공부하신 정연스님께서 베다와 우파니샤드 등 인도철학 전반에 대하여 특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던 인도보다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인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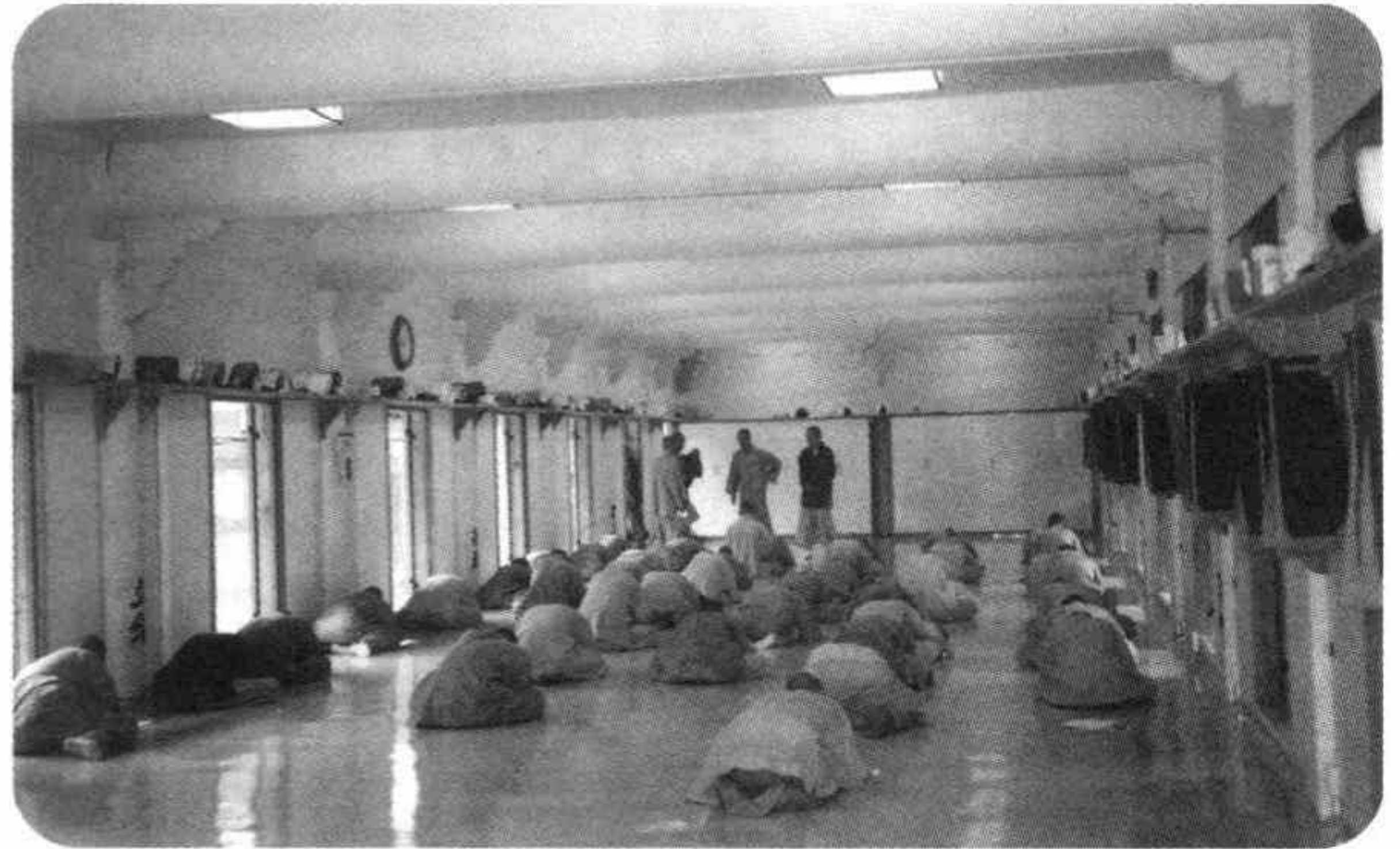


3월5일-27일 제14기 행자교육

그 동안 순회적으로 실시되었던 행자교육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송광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6개월 이상의 행자생활을 한 행자님들이 이곳에 모여 3주간의 교육을 받고 사미계를 수지 하였습니다. 마지막날 대표소에서 대웅전까지 약 2km이르는 길을 3보1배로 오체투지를 하였습니다. 방장스님께서도 참여하셔서 행자님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4월 20일 봄산철 시험

봄산철 기간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석사시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진일보한 모습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을 재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5일 소방훈련

우리나라 사찰 중에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건물이 밀집한 송광사는 그만큼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시에 신속한 조기진압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실재상황을 전제로 소방훈련에 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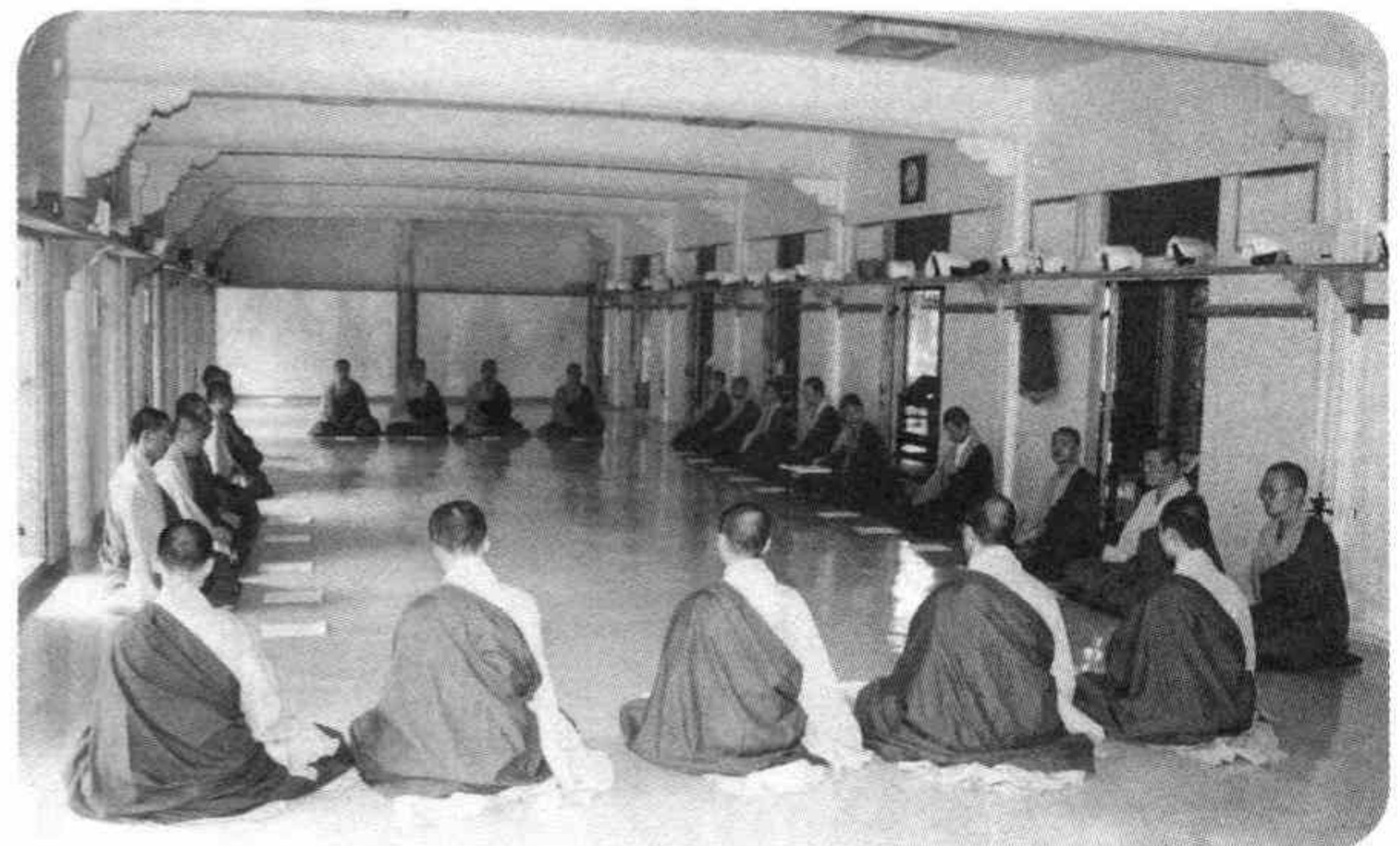
5월 7일 공루 해체 복원공사

그 동안 일부 강원 지대방으로 사용되어 왔던 해청당 앞 2층 공루가 붕괴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해체 복원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롭게 단장한 지대방에서 강원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5월 12-8월 3일 청규습의

결재중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에 청규습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달 동안의 잘못된 점 흐트러진 점들을 다시 점검하고 참회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5월 16일 광주 5.18 민주항쟁
희생영령 추모 천도법회

“민주 영령들이여, 이제 모든 아픔 버리고 극락왕생하소서”. 망월동 5.18 민주 항쟁 희생자 묘역에서 과거 어두웠던 정치적 갈등으로 비명에 가신 영령들의 합동 천도법회를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하였습니다.



5월 24일 제다법 특강 및 실습

“어! 되네! 신기하다! 우리 손으로 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니!” 차 만드는 법에 대하여 용운스님으로부터 한시간 동안의 이론 강의를 받고, 이어서 직접 차를 만들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6월 4일 지방 단체장 선거

“음-누굴 찍을까? 산 속에 살아도 세속일은 무시할 수 없는 법. 덕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했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 지역 자치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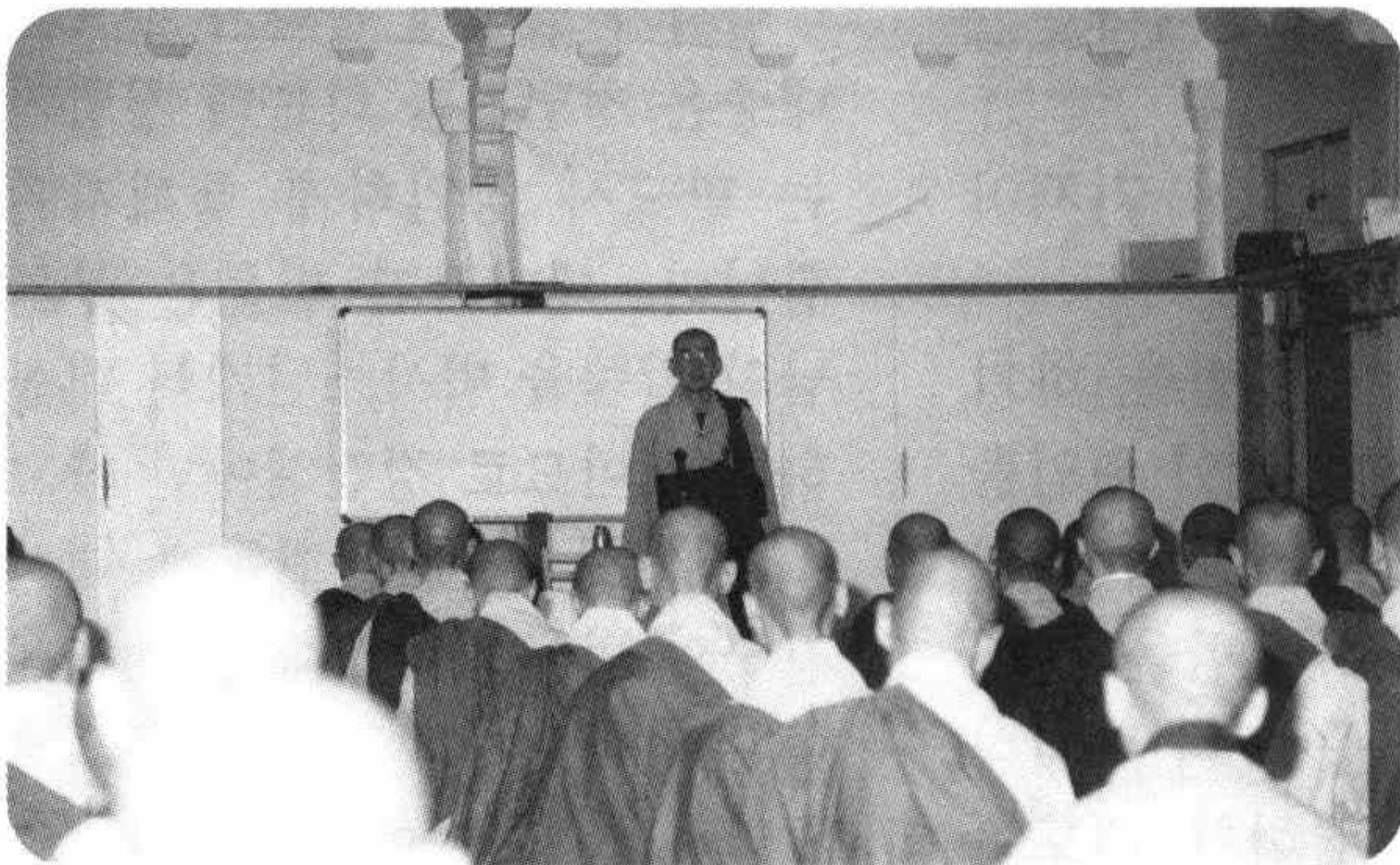
6월 10일 부탄 린포체 초청 대담 및 법회

부탄에서 온 스님들과 강원스님들이 서로의 수행 법에 대하여 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수 석천사에서 부탄의 전통승무를 관람한 후에 린포체의 법어와 마정수기의식에 동참 하였습니다.



6월 24일 반결재 소풍

반결재를 맞이하여 주변 사찰을 참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한정된 공간과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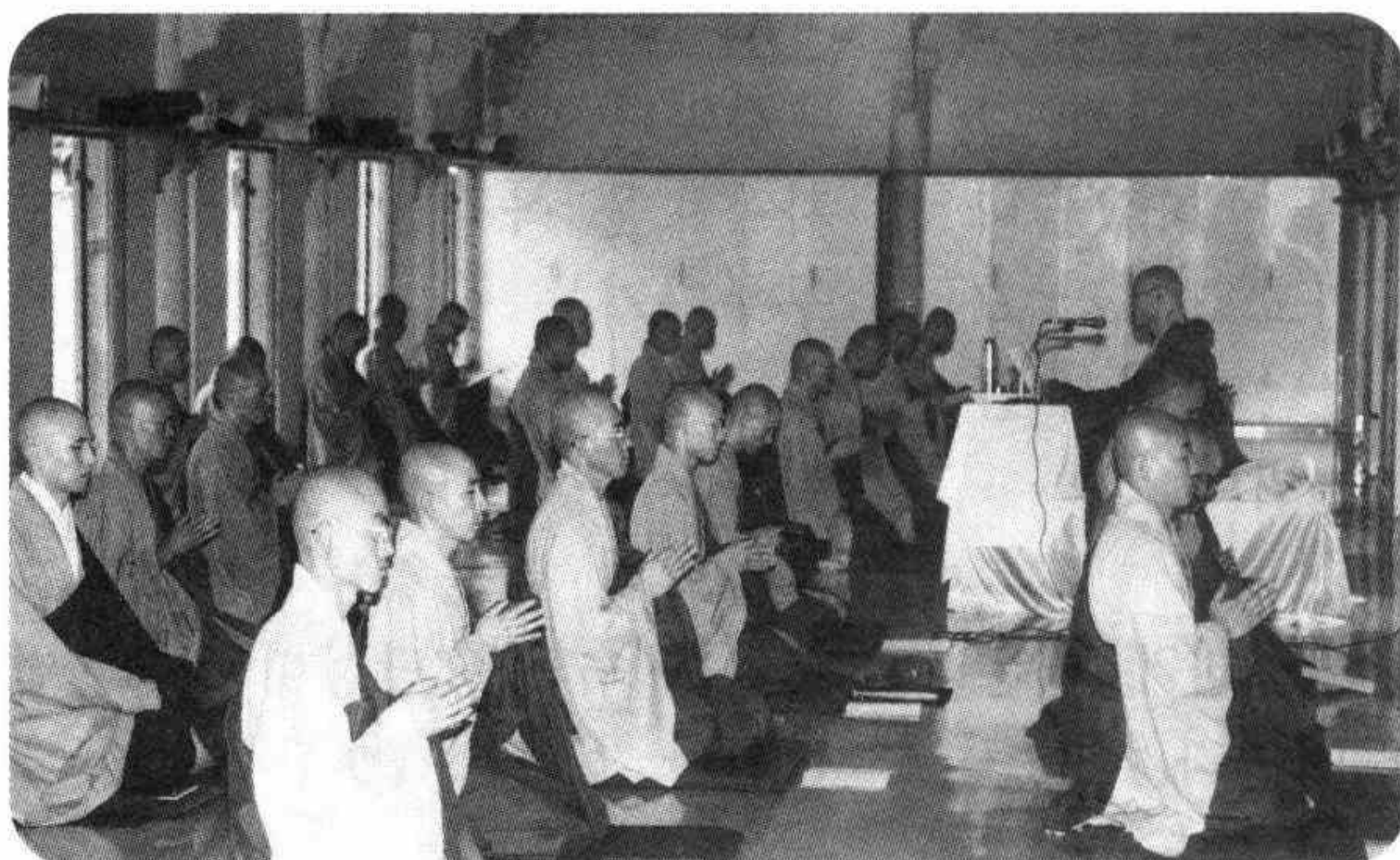
6월 25-27일 원통스님 예불문 특강

예불문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확실히 아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예불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6월 29일 감자울력

대중스님네들과 텃밭에서 감자 캐는 울력에 동참했습니다. 이 감자는 올 겨울까지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할 것입니다.



5월 10일 - 8월 6일 포살

“계는 성불의 사다리이다”

결제중 보름에 한번씩 보살계 포살과 사미계 포살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지계정신이 희박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법방법론(2)

진옥(眞玉)/석천사 주지

3. 설법의 방법

1) 법구는 미리 갖추어 놓는다.

법사 본인이 설법을 할 때 필요한 법구는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어를 할 경우에는 주장자를, 진언을 해 줄 경우에는 요령을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법을 하는 도중 이런 것을 찾으면 설법의 흐름이 끊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의나 강연일 경우에는 법상이 필요 없이 서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행할 수 있으나, 법문을 할 경우에는 꼭 법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단 앞에는 법상을 놓아야 하고 법단 앞에는 초, 향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기원정사 발굴현장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1평 남짓) 방들이 4-50개 있었는데 그 방들은 1인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방들이 빙 둘러 위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에는 돌로 쌓은 법석이 있는데 법석에는 올라앉는 법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법문시에는 반드시 필요

한 법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법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법상에 올라가 설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3배를 받아 위엄을 갖춘 후 청중들을 압도하는 배짱과 자신감으로 설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중을 너무 의식하여 지나치게 겸허한 태도는 설법의 진행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경찰서에 가서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서장이 "스님 이제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이니까 제가 알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서장님!" 라고 하니 그 서장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법문이 끝날 때까지 꼼짝 못하고 들을 수 밖에요.

3) 청법가는 장엄하게 하고 입정은 반드시 해야한다.

법사가 법단에 올라가 앉으면 대중은 청법가를 하는데 청법가는 반드시 장엄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법사스님께서 대신하는 것이므로 경건해야만 하고 그 장엄함 속에서 법문에 대한 갈구와 법사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정을 할 때에는 법사와 그곳에 참여한 온대중이 여법하게 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선정속에서 법을 설하였고, 대중 또한 삼매 속에서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법문을 듣기전 산란한 마음과 알음알이를 버리고 또한 법사와 대중이 하나되는 분위기를 위해서 입정은 꼭 해야 합니다.

4) 복장에 유념해야 한다.

강의나 강연을 할 때에는 좀 자유로운 복장을 해도 좋지만 두루마기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적삼차림은 곤란합니다. 사실 적삼은 실내에서 입는 실내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은 단정히 깎고, 법문이나 법어를 할 경우에는 대

가사, 장삼을 꼭 착용해야 승려로써의 위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 내의 착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원색적인 색깔은 피하고 무난한 색깔의 내의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이크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대중들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차이없이 부처님의 법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원음일연(原音一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 본인의 기운을 다 채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중이 한눈에 보이는 법상에 올라가 입정을 할 때 그 공간 전체에 내 기운이 가득 찬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3천명을 모아 놓고 설법을 진행할 때 대중이 모인 공간 안에 내 기운을 가득 채워서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전혀 마이크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운의 파장효과입니다.

6) 언어 사용상의 기교.

가능하면 표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각 지방에서 온 신도들이 알아듣기에 편합니다. 법문이 신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문의 효과가 반감되어 그만큼

법문의 가치가 저하됩니다. 간혹 분위기 전환의 필요에서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청중의 수준에 맞추어 언어의 난이도를 조절하되 최대한 시대에 맞는 쉬운 말을 사용하고 고저장단의 리듬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신체상의 결함에 대한 말을 쓸 경우에는 점잖은 언어를 써야지 시각장애인을 봉사·장님이라고 칭한다던가, 소아마비나 사고로 지체 부자유한 자를 다리 병신·절름발이라고 칭한다던지 하는 것은 반드시 쓰면 안됩니다. 청중 가운데 당사자이거나 자신의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는 절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절 자체를 싫어 해버리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을 메꿔주는 격려의 말,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아픈 곳을 감싸주는 그런 말을 써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교도소에 가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난감하더라고요. “죄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다 깎아서 같고, 둘째는 나는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칭하지는 않

았지만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칭했고, 내가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이 교도소 문밖을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10년 결사를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까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또 “여러분의 푸른 옷이나, 나의 회색 옷이나, 여러분의 푸른 고무신이나, 나의 흰 고무신이나 무엇이 다르게 있겠습니까?” 단지 다른 것은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인정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여기에 데려 온 것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법문자와 청중의 격이 허물어지고 일체감이 형성되었습니다.

7) 금전적인 것에 초연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진리에 목마른 중생에게 아무런 댓가없이 끝없는 자비심으로 45년간 감로법문(甘露法問)을 설하여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듯이 법문에 금전적인 댓가가 개입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법사는 누가 원하는 법문을 해주어야 하고, 그 법문에 대해서 어떤 댓가나 상(相)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
진옥스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를 마감하지 못하여 편집부에서 진옥스님의 강의 테이프를 녹취하였습니다.

결망 하나 메고

혜성(慧愷)/치문

2월26일 동안거를 마치고 광주에서 탁발을 한 후 한 달간의 방학에 들어갔다.

서울 길상사·법련사·인천 용화사를 경유하여 지금 나는 강화도 전등사에 서 있다. 이곳은 우리 강원 상급반 스님의 본사인터라 그 스님의 배려로 편하게 하루밤을 묵을 수 있었다.

3월2일 아침 마니산으로 향했다. 몇 명의 등산객이 있을뿐 인적은 별로 없다. 산은 낮아 보였으나 올라가는 데는 꽤 가파른 지형이다. 이곳은 참성단(塹城壇)이 있는 곳이다. 참성단은 단군께서 하늘에 제사(祭祀)를 올리던 제단(祭壇)으로, 해마다 개천절에 이 곳에서 단군의 제사를 지내며 전국체육대회 때마다 대회장에 타오르는 성화(聖火)는 이 참성단에서 칠선녀(七仙女)에 의하여 채화(採火)되어 대회장으로 운반 점화(点火)된다. 참성단에 도착하니 제단 상부는 올라 갈 수 없고 제단 밑에는 청동향로가 있고 제단은 원형경기장 형식으로 빙 둘러 돌담을 쌓았으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사방을 살펴보니 강화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멀리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자그마한 섬들이 보인다. 조금 후에 가 볼 보문사가 있을 섬도 저 섬들 중에 있으리라. 외포리에서 석모도행 배를 타기 위하여 선박승선자 명단을 2매 작성하고 차량을 함께 태울 수 있는 배를 탔다. 배 주변에 갈매기들이 모여 있다가, 배가 출발하자 날면서 뒤쫓아 온다.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받아 먹는 것이 신기하다. 석모도에 도착하여 20분 가량 버스

를 타니 삼대 해상 관음도량의 하나인 보문사에 도착하여 원주실에서 객실을 알아보고 사내 답사를 시작하였다. 보문사 석실에 먼저 갔다. 이곳은 신라 선덕여왕 4년(635)에 회정대사가 창건한 나한전으로써 자연암벽 밑에 석실을 마련하여 그 안에 나한상들을 모신 석굴사원이다. 천연동굴을 이용하여 입구에 3개의 홍예문(虹門)을 만들고 동굴안에 감실(龕室)을 마련하여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미륵·제갈라보살·나한등을 안치하였다. 이 석불들을 신라 선덕여왕 때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린 불상을 현몽대로 안치했더니 거부(巨富)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대웅전 뒷 쪽 계단을 올라가니 처마처럼 튀어나온 바위 밑 천연암벽에 관세음보살이 양각되어 있다. 삼배를 하고 잠시 입장을 해본다.

3월3일 보문사에서 나와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든 보살이 말을 건다. “스님은 어느절에 계세요?” “송광사에 있습니다.” “아! 송광사요. 저도 3년전에 거기에 가보았는데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계속 잇는다. “저는 혼자 산지 30년 되었는데 스님들 처럼 수행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육식과 오신채를 먹지 않으며 전국 기도도량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커피 한 잔 하시죠?” 라며 자판기 커피 한잔을 뽑는다. “스님! 저는 약간의 민간요법을 행하며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리들이(?) 많이 붙어요 여비가 없다고 오는 사람, 잠자리가 없다고 오는 사람, 밥을 먹지 못

했다고 오는 사람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람 있게 시시는군요. 보통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도와줍니다.” 배는 어느새 육지에 닿았고 나와 노보살은 강화읍행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보살님 잠전에 내가 커피 한잔 얻어 먹었으니 버스비는 내가 내죠!” “스님 아니예요 스님을 도와줘야 하는데 도리어 거꾸로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 “호호 맞아요.” 서울 상봉 터미널에 도착하여 속초행 버스를 탔다. 3월 4일 신흥사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설악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설악의 높은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루며 서 있다. 표를 사려 하였던니 그냥 들어가라 한다. 얼마쯤 걸어가니 통일대불이 근엄하고 장엄하게 앉아 계신다. 이 통일 대불은 석가모니불로서 청동으로 만든 좌불상으로는 세계최대 (18m 10cm)이다. 신흥사 경내를 살펴보고 종무소에 들어가 묵담 스님의 근황을 물으니 몇일 전 해인사 강원예 입방하러 갔다고 한다. 신흥사에서 나와 바로 낙산사로 향하였다.

객실에 결망을 풀고 먼저 바닷가로 내려가니 정자가 있었는데 의상대사(義湘大師)의 좌선처였던 이곳에 1925년 정자를 짓고 의상대(義湘臺)라 명명한 것이다. 의상대 앞으로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암석들로 이루어진 주변 경관과 수초와 돌이 보일 정도로 맑은 물,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바위에 부딪힌다. 의상대사는 부딪히는 이 파도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나지막한 소리로 의상대사의 법성계(法性偈)를 읊어본다.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좌측으로 100m 정도 가면 홍련암(紅蓮庵)이 나온다. 이곳도 삼대 해상 관음도량(觀音道場)의 하나이다. 기도하는 스님과 10여 명의 신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

도를 하고 있다.

3월 5일 울릉도를 가려고 속초항으로 갔다. 그러나 배는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 이틀을 기다려야 하므로 나는 백담사로 향했다. 용대리에서 내려 백담계곡 초입에 이르니 지나가는 차가 손짓을 하며 태워준다고 하였으나 주변경관 보면서 가고 싶어서 사양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길은 빙판이다.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 이런 한적한 곳에서 웅장한 백담계곡을 끼고서 산행을 하는 기분은 정말 상쾌하다. 백담계곡의 물소리와 낙산사에서 같은 객실에 묵었던 인연으로 여기까지 같이 오게된 범어사 강원에 있는 쾌성 스님과 나의 발자국 소리뿐! 얼마를 걸었을까? 처음의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등에 멘 걸방이 어깨를 조여오고 있다.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얼마되지 않을 것 이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꽤나 먼 길이다. 아까 그냥 보낸 차가 아깝다는 생각이 짜꾸든다. 백담사에 도착하자마자 한 스님에게 “스님 늦었지만 점심공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요” 범어사 스님과 나는 밥 두그릇에 반찬까지 다 먹어치웠다. 공양을 한 후 사내 답사를 하였다. 이곳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듯 스님의 동상과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3월 6일 아침공양상에 쾌성스님과 나 그리고 통통한 몸매에 6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분이 함께 앉았는데 나이든 그분은 머리에는 군용모자, 속옷은 빨간 슈타. 아랫바지는 군복 색깔의 누빈 옷차림이었다. 그분은 송이국을 다정스레 떠주면서 맛있다고 먹으라 하였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낫이 익은 얼굴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누굴까? 하고 계속 의문이 인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나는 말문을 연다. “저 혹시 중광스님 아니십니까?” “예 맞아요.” “여기 계십니까?” “저기 위 선방에 있어요. 스님은 본사가

어디요?” “송광사입니다. 저 스님계신 곳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 9시에 올라 갈거니까 그때 봅시다” 나는 같이 온 쾌성스님과 작별하고 중광스님을 만나러 관음전에 갔다. 인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은사 스님은 뉘시오?” “智者眞자 이십니다.” “음 그래요? 군법사로 있다가 얼마전에 죽은 달진 스님과 효봉스님을 같이 시봉한 스님인가요?” “예.” “옛날 동화사에 효봉스님이 계실 때 같이 산적이 있습니다. 효봉스님은 실력도 있고 너그러운 분이셨지.” “스님은 이곳에 언제 오셨습니까?” “음. 2년 됐지!” “이곳에서 공부하십니까?” “음. 그래요. 그림도 그리고 정진도 합니다. 매일 용대리까지 포행을 하면서 정진을 합니다. 자네처럼 걸망메고 다닐 때가 좋았었네!” 라고 하며 그림 두점을 봉투에 넣으면서 은사스님 것과 내 것이라고 하면서 건네 주었다.

개구리와 중은 어디로 튀는지 알수 없다고 했던가? 백담사를 나와 용대리로 향하던 중 왔던 길을 다시 가려고 하니 따분할 것 같아서 예정에 없던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을 넘어보자! 봉정암을 거쳐 비선대로 가보는 거다!” 아직 눈도 녹지 않고 등산화도 없고 옷차림새도 엉성하여 다소 무리가 될 듯 싶었으나, 눈썹인 산 정상에 보니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이다. “죽기야 하겠냐!” 한 시간 가량 걸으니 수렴동 산장이 나왔다. 주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가라고 하였다. “좋습니다.”하고 그 청년에게 몇가지 물어 보았다. “여기서 산장을 운영하십니까?” “예, 산장운영도 하고 인명구조도 합니다.” “얼마전 이 근방에서 조난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예 사고가 자주 발생 합니다 대부분 자만심에서 오는 사고입니다. 산 좀 타봤다고 충분한 준비 없이 산을 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인명구조를 하면 국가적인 지원이나 민간단체에서의 지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저 나로 인해서 죽

어가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구조를 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습니다.” “이쉽군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 데 나도 수년전 연탄가스에 중독돼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음 속으로 고마움을 물어둔채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마움을 가슴 속에 묻어 두고 삽니다. 나의 경우와 같이 구조된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는 고마움을 표시는 않지만, 마음 속으로 늘 고마움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 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담사에서 세시간 정도 걸어 왔다. 계곡이 좁아지는 것을 보니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눈길에 발이 빠져서 양말과 신발이 모두 젖었다. 길 옆으로는 기암절벽이 펼쳐져 있고 이정표에는 대청봉 4km 라 적혀 있다. 거센 바람이 골짜기를 감돌아 휘몰아 친다. 다리의 힘도 많이 빠졌다. 나의 마음은 정상을 향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잡념은 들지 않는다. 눈 꽃이 눈이 부시다. 가까운 암자에서 점심을 먹어야 힘이 솟을 것 같다. 백담사에서 꼭 4시간을 걸었다. 계곡 사이로 난 다리는 눈에 파묻혀 있고 다리 밑 계곡에 쌓여 있는 눈 사이로 길이 나있다. 물 가운데로 길이 나 있어서 눈이 절반쯤 녹아 있는데 다른 길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조심 조심 걸어간다. 불안한 예감이 든다. 그때 “푹! 이크...” 반쯤 녹은 눈이 꺼지면서 나의 하체가 물속으로 박혀 버렸다. 몸부림을 치고 허우적거리며 밖으로 나왔으나 나의 하체는 완전히 물에 젖어 버렸다. 매섭게 부는 바람에 나의 하체는 살을 에는 듯하게 시려왔다. 조그만 방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아! 내가 설 곳은 언제 나타날는지..”

눈앞에 30M 높이의 절벽이 나를 기다

리고 있다. 조금전 물에 빠진 이후로 나의 하체는 무겁고 다리의 힘은 거의 빠진 상태다. "힘을 내자!" 3M 앞을 가기가 힘들다. 눈에 발이 빠질 때마다 다리의 힘은 더욱 더 빠진다. 앞 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면 푹 꺼지곤 한다.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단내를 토한다. "잠시 쉬자.!" 걸망을 바위에 놓고 한 숨을 돌린다. 순간 바위 올려 놓았던 걸망이 계곡 밑에서 휘몰아쳐 올라오는 바람에 의하여 20m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어어!" 걸망을 주으려 다시 내저가야 한다. 온몸의 맥이 다 빠진다. 어렵게 걸망을 찾아 정상으로 올라왔으나 첩첩산중이라 했던가? "이 절벽만 넘으면 뭐가 있음지도 할텐데..." 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또 하나의 봉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물....." 현기증이난다.

"땡그렁 . 땡그렁"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소린지 집중하여 듣는다. 풍경소리가 맞다. 풍경소리다.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 봉정암" 기쁨의 탄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밤길에 등불을 본 것 같다는 말은 지금 같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리라! 봉정암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 예불을 드리러 갔는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만행을 다니면서 혹시 어떤 암자에서 예불을 청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큰 절에서 행자생활을 해서 부전스님 따라 부담없이 예불을 드렸고 수계 후 강원에서는 사집반에 올라가서야 각단 부전 소임을 보는 터라 직접 목탁을 잡고 예불을 올린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직접 예불을 올릴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처사님이 "스님 ! 예불을 좀 드리주세요! 원주 스님과 기도 스님 두분이 사시는데 기도 스님은 치료차 병원에 가셨고 원주 스님은 산행으로 인하여 몸이 피곤하여 예불을 못드립니다." 난감하였다. 잠깐 망설인 끝에 "직접 예불을 드린 적이 없어서 좀 서툴겠지만 한 번 해보죠!" 하고

목탁을 잡고 숨을 가다듬은 후 "계-향(또르륵) 정-향(또르륵)... 지심 귀명례 시방 삼세 제망찰해 ! ..." 이런 실수가!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나와야 하는데 다음 구절이 먼저 나왔다. 얼굴이 달아 올랐다. 정신차리자! "서건동진 급아해동-역대 전등조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천하종사가 튀어나오지 않았고 제대 선지식 뒤에 내림 목탁을 내리지도 않았다. 이왕 틀린것 마음 놓고 해보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심경은 실수 없이 마쳤고 천수경이 이어졌다. "정구업진언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목카싱카 목카야 사바하 바나마 하타야 사바하..." 신묘장



구 대다라니 마지막 몇 부분이 막혀버렸다. 우물우물 그냥 넘기고 "나무상주 시방승 (똑똑똑) 이제 끝났구나! 이마에 식은땀이 베어있었다. 평소에 염불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오늘 같은 대수치를 불러 온 것이다. 승려는 참선 공부, 경공부 뿐만 아니라 염불도 필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통감하였다. 예불을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게 마치고 객실에 오니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고 심장이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으며, 정신은 멍하니 얼이 빠져 있었다. 수치감이 몰려 왔다. "아 괴롭다!"

다음 날 아침예불 시간이 되었다. 이때도 원주 스님이 나오지 않았고 공양주보살님이 나와 있었다. 이왕 망신당한 것 더 당할 것이 뭐 있겠느냐? 싫어 경험을 쌓는 셈치고 "오늘 아침 예불도 내가 드

리겠습니다." 하고 목탁을 잡았다. "아 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정구업진언.... 나무상주 시방불" 예불 중간에 막힌 부분이 몇 번 있었으며 건너 뚫는 것도 몇 번 있었고 목탁을 잘못 내린것도 몇번 되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침 공양을 마치니 원주 스님이 아이젠과 객비를 주면서 무사히 하산하라고 한다. "구름이 손에 잡힐 듯 하다. 지금 위치는 소청봉, 오른쪽으로 레이다 기지로 생각되는 둥근 구조물 뒷편으로 봉우리가 보인다. 저기가 대청봉인 것 같다. "여기까지 왔으니 대청봉을 경유해보자!" 매서운 북풍이 불면서 어젯밤 내린 눈을 몰아 내 몸을 때린다. 강렬한 아침햇살이 산 전체를 비추니 눈이 반사되어 산 전체가 수정처럼 빛난다. 드디어 대청봉 1708m라 쓰인 정상을 표시하는 바위가 보인다. 대청봉인 것이다. "야호..." 사방을 둘러보니 설악의 전경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고 수많은 봉우리들이 구름에 쌓인채 솟아있다. 운무가 뿌옇게 몰아친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나의 발 밑에 놓여 있다. 구름은 이 대청봉보다 더 이상 높지 않다. 구름이 손에 잡힐 듯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간다. 지금까지 즐기차게 위로 향하던 나의 발걸음은 이제 밑으로 향해야 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있다. 봉정암에서 5시간을 걸어왔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거의 다 내려 온 듯 하다. 비선대(飛仙臺)라! 정말 신선이 날아간 듯하다. 기암 절벽 밑으로 계곡물이 시원스레 굽이쳐 흐른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휴게소에서 산채 비빔밥과 감자전으로 점심 공양을 한다. 몇일전 보았던 통일대불이 눈앞에 보인다. 신흥사 입구까지 온 것이다.

울릉도행 배를 타기 위해 속초항으로 급히 갔으나 그런데 배는 이미 떠난 뒤였다. 오전 10시에 떠난 것이다. 내일 배편

으로 가야한다. 어쩔수 없이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3월 8일 향으로 갔으나 이게 또 웬일인가! <금일 기상악화로 출항이 금지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매표소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한 점 없고 바닷물도 잔잔한데.... 한참을 대기실에서 앉아 있다가 합천 해인사로 방향을 돌리기로 결정했다. 울릉도는 이번 만행에서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련을 버렸다. 저녁 8시 20분 어둠이 짙게 깔린 해인사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했다. 행자님께 객실을 부탁하자 방부드리러 온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같이 이용하라고 한다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묵담스님임을 감지했다. 예감은 적중하였고 묵담스님과 그간의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3월 9일 대구에서 묵담 스님과 헤어진 후 부산행 열차를 타고 범어사, 통도사, 불국사를 돌아보고, 3월 11일 안과 검진을 받기 위하여 서울로 다시 향했다. 친구집에 들렀는데, 친구는 출가한 나를 보고 안타까운 눈길을 자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운 듯 내 걸망을 만지작거리면서 "야! 낭만적이다. 이제 자유인이 된거냐?" 하면서 출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지 자꾸 묻는다. "별다른 것 없어! 사람 사는 곳이야. 삶의 방식과 목적이 세간 사람과 다를 뿐 사람들의 삶이야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공부하고, 예불하고, 참회하고, 때론 공도 차고..."

3월12일 나는 지금 관악산 밤길을 걷고 있다. 어두움 가운데 희미하게 이정표가 보인다. 연주암 1.7km 주변엔 등산객의 발길이 끊기고 계곡의 물소리만 지친 나그네를 위로 한다. 이곳 관악산은 나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초등학교 · 중학교 때 이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악산으로 놀러 오기도 하고, 봄 · 가을 소풍때면 단골 코스였기 때문이다. 관악산은 아름다운 산이다. 산세는 원만하지는 않지만 기암들이 곳곳에 서있고 가을

이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곳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콘크리트구조물과 세파에 지친 서울 사람들의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연주암은 밤의 고요속에 잠겨있고 풍경소리가 가끔 들려 올 뿐이다. 이곳은 중학교 가을 소풍 때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기억된다. 반 친구들과 도시락을 까먹고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던 짧은 옛 기억이 스파크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

3월 21일 인천에 있는 속가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 속가집에 가게 된다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어제밤 꿈 속에서 어머니가 꽃을 들고 물을 건너가는 모습과 동생이 울고 있는 묘한 꿈을 꾸었는데 자꾸 그 꿈이 나의 마음을 집으로 향하게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속의 모든 인연에 꼬달리지 않으리라 결심했지만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나의 의지를 잡아 매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눈가엔 눈물이 감돌아 소리없이 두뺨을 스치고 발등으로 떨어진 다. 숨소리와 강렬한 눈빛만이 나와 어머니와의 짧은 거리에서 파장을 일으킬 뿐.... 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시면서 그간의 정황을 더듬더듬 말씀 하신다. 어머니의 말씀에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밥을 다먹자 어머니가 숨을 길게 내쉬면서 "요즈음 몸이 너무 아프다.

산다는 것이 고통이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떠난다. 다 떠나가! 이 세상에 나혼자만 있는 기분이다. 결국은 혼자야!" "어머니! 우리들은 혼자라는 고독을 면하려고 각종 인연을 맺지만 정해진 인연이 다되면 흩어져 결국은 혼자만 남습니다. 이것은 이 사바세계의 우리 중생들을 슬프고 고달프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맺어지고 풀어지고 그 끝이 없죠. 내일 동생집에 가야겠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적엔 너희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힘든줄 모르고 재미있게 살았는데! 어찌되었건 네가 선택한 길이니 후

회없이 살고 건강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원할게!"

3월 22일 동생 집으로 향했다. "형! 이쪽이야!" 동생집 근처에 도착하자 마중 나왔던 동생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품에 아이를 안고 동생 아내가 미소 지으며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며 인사를 한다. "아들이냐?" "응. 승훈이..." "너를 많이 닮았다. 특히 귀가!" 동생은 내가 출가한 뒤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것이다. "형! 외할머니 돌아가신 것 알아!" "...??" " "돌아가실 때 큰 병 없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셨어. 작년 12월에...." "결국은 가셨구나! 장지는 어디에 정했니?" "충청도 천안 근방"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더냐?" "응. 몹시 슬퍼하셨고 하관(下棺)하는 장면은 보지 않으셨어" 동생에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출가한 후 우리집에서는 탄생의 즐거움과 죽음의 슬픔이 교차하였던 것이다. 외할머니께서는 평소 어머니를 안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집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던 분이다. 특히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나의 특별한 대화의 상대였고, 어머니에게는 정신적 의지처였다. 항상 우리집에 도움을 주고자 하셨다. 내가 출가한 후로는 몹시도 우셨다고 한다. 그런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이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귀사하는 버스 속에서 과거 할머니와 지내던 기억들이 찰나찰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담배 피우시는 것이었는데 그 담배 한 보루도 사드리지 못했던 나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와 이제는 뱉지 못할 아쉬움으로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제 나에게서 또 하나의 인연이 저 허공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창밖을 보니, 차창너머로 생명이 기운이 움트고 있다. 이제 탄생과 생명의 계절 봄이 온 것이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를 읽고

연일(然一)/치문

어제부터 내린 비로 불일 폭포가 제법 장관을 이루고 있다. 행사교육을 마치고 금산사와 송광사에 이어 행사생활을 한 남원 실상사에 들려서 그곳 스님들께 그동안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산 정혜사 선방에서 산철 결재를 나고 계신 은사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정보다 하루 늦게 송광사에 도착 하였다.지객 스님을 찾아 강원 입방원서를 쓰고 나니 제일 먼저 주어진 일이 바로 정혜사 원고를 써서 제출 하라는 것이었다. 평소 워낙 글과 친하지 않다 보니 글쓰는 것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강원이라는 다른 나라에(?) 오다보니 글짓기라는 것도 하나보다. 문득 행사교육을 받으며 법보시 받은 책이 생각이 났다.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대원사 현장스님 글인데 다소 무거운 느낌이 있지만 잊고 살기 쉬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흔히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는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게 괴롭다. 죽지말라 태어나는 게 괴롭다’라는 말로 생과사의 윤회의 고통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죽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다. 중생의 삶이란 무명의 업력이 일으킨 편린들의 집합이다. 인간도 삼라만상과 마찬가지로 조건의 형성으로 태어나고 조건의 없어짐으로 죽는다.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소멸될 때, 즉 T.V의 주파수를 바꾸면 채널이 바뀌듯이 삶의 주파수 영역에서 죽음이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마치 한 쪽에서는 스포츠 프로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홈 드라마를 하는 거와 같다. 다만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한 채널 속 프로에 출연하는 등장인물에 불과 하기에 다른 채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실상이다.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몸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다. 사대가 흩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흙기운이 불의 기운으로 바뀐다. 이때에는 주위의 압력이 세계 온몸을 짓눌러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는 물기운이 불기운으로 바뀌면서 차가운 기운이 심해 뼈마디와 내장이 얼어붙는 듯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 세 번째는 불기운이 바람기운으로 바뀌면서 몸의 기운이 다하게 되어 더욱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갑자기 온 몸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불에 타는 듯한 괴로움이 내장과 팔, 다리에 스며들고 힘살과 힘줄을 도려내는 듯한 괴로움으로 온 몸이 나무토막 처럼 굳어버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고 마침내는 숨결이 멈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바람 기운이 흩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기운이 죽은이의 온몸에 몰아쳐 몸이 조각조각 먼지로 흩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죽음에 이르는 생리적 현상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죽는 이의 고통이

심하기에 옛 선사들은 죽음에 이르러 살림살이가 다 드러난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죽기 전의 모습속에서 다음 생을 추측 할수도 있는데 사나운 얼굴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공중에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잡으려 하며 슬피 울고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지옥에, 입술을 자주 벌리고 몸이 뜨거우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무엇인가를 먹으려 하면 아귀에 감응하는 모습이다. 남편, 아내에 대한 미련이 많고, 온몸에 땀이 흐르며 손, 발톱 등을 움츠리면 짐승 세계에 감응하는 모습이다. 편안하고 착한 생각 속에 부모 생각을 하며 말이 적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 연민심이 발하고 항상 기쁘고 밝은 모습이며 몸에 악취가 없고 재산이나 가족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천상 세계에 태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의 현상들 앞에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임종을 앞두고 정토에 대한 믿음과 원을 간절히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염하는 것

이 가장 좋다.

둘째: 주위에 청정한 스님들을 자주 모셔 법문을 자주 듣는다.

셋째: 병원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방이 좋다.

넷째: 당부하거나 정리할 일, 소지했던 물건들을 빠짐없이 전달하여 세상의 연을 다 놓고 집착이나 미련이 없도록 한다.

다섯째: 몸을 청결히 하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내지 않고 다만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당하여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숨을 거둔 사람이라고 해서 영혼이 바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정도는 육체에 남아서 의식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거나, 시신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남아있는 영혼을 괴롭히는 일이기에 반드시 금해야 한다. 상을 당하여 산 목숨을 죽여 문상객을 대접하고, 닭, 돼지등을 잡아 영가를 위하는 것은 반드시 악업을 더하여

영가에게 고통을 증가시키는 일 이므로 금해야 한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이나 몸에 파리, 모기, 개미등이 기어다니지 않도록 하며 냉동처리나 방부처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가 염려되거든 좋은 향을 피우거나 방에 얼음을 놓아두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우리가 죽은이를 위하여 지성으로 해야 할 일은 편안하게 정토에 태어나도록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니 여러사람이 큰소리로 할수록 좋고 끊이지 않게 교대로 해도 좋다. 그렇다면 수많은 불·보살님들 중에 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야 될까?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 원력 보살로 수행 할 때 '내가 만약 성불하면 시방 중생에 나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내 이름을 열번만 지성으로 부르면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라는 원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아미타불을 염하고 언제든지 홀연히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저마다 갖고 있지만 애써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죽음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대해탈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修 心 訣

혜성(慧惺)/ 치문반

三界熱惱，猶如火宅，其忍淹留，甘受長苦。欲免輪迴，莫若求佛。若欲求佛，佛即是心。心何遠覓，不離身中。色身是假，有生有滅。真心如空，不斷不變。故云，百骸潰散，歸火歸風，一物長靈，蓋天盖地。嗟夫。今之人迷來久矣。不識自心是真佛，不識自性是真法，欲求法而遠推諸聖，欲求佛而不觀己心。若言心外有佛，性外有法，堅執此情，欲求佛道者，縱經塵劫，燒身煉臂，敲骨出髓，刺血寫經，長坐不臥，一食卯齋，乃至轉讀，一大藏教，修種種苦行，如蒸沙作飯，只益自勞爾。但識自心，恒沙法門無量妙義，不求而得。故世尊云，普觀一切衆生，具有如來智慧德相。又云，一切衆生種種幻化，皆生如來圓覺妙心。是知離此心外，無佛可成。過去諸如來，只是明心底人，現在諸賢聖，亦是修心底人，未來修學人，當依如是法。願諸修道之人，切莫外求。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問，若言佛性，現在此身，既在身中，不離凡夫，因何我今不見佛性。更爲消釋，悉令開悟。答。在汝身中，汝自不見。汝於十二時中，知飢知渴，知寒知熱，或瞋或喜，竟是何物。且色身是地水火風四緣所集，其質頑而無情，豈能見聞覺知。能見聞覺知者，必是汝佛性。故臨濟云，四大不解說法聽法，虛空不解說法聽法，只汝目前歷歷孤明，勿形段者，始解說法聽法。所謂勿形段者，是諸佛之法印，亦是汝本來心也。則佛性現在汝身，何假外求。汝若不信，略舉古聖入道因緣，令汝除疑，汝須諦信。昔異見王，問婆羅提尊者曰，何者是佛。尊者曰，見性是佛。王曰，師見性否。尊者曰，我見佛性。王曰，性在何處。尊者曰，性在作用。王曰，是何作用，我今不見。尊者曰，今現作用，王自不見。王曰，於我有否。尊者曰，王若作用，無有不是，王若不用，體亦難見。王曰，若當用時，幾處出現。尊者曰，若出現時，當有其八。王曰，其八出現，當爲我說。尊者曰，在胎曰身，處世曰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曰辨香，在舌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現俱該沙界，收攝在一微塵。識者知是佛性，不識者，喚作精魂。王聞心即開悟。又僧問歸宗和尚，如何是佛。宗云，我今向汝道，恐汝不信。僧云，和尚誠言焉敢不信。師云，即汝是。僧云，如何保任。師云，一翳在眼，空華亂墜。其僧言下有省。上來所舉，古聖入道因緣，明白簡易，不妨省力。因此公案，若有信解處，即與古聖把手共行。問。汝言見性，若真見性，即是聖人，應現神通變化，與人有殊。何故今時修心之輩，無有一人發現神通變化耶。答。汝不得輕發狂言。不分邪正，是爲迷倒之人。今時學道之人，口談真理，心生退屈，返墮無分之失者，皆汝所疑。學道而不知先後，說理而不分本末者，是名邪見，不名修學。非唯自誤，兼亦誤他，其可不慎歟。夫入道多門，以要言之，不出頓悟漸修兩門耳。雖曰頓悟頓修，是最上根機得入也，若推過去，已是多生依悟而修漸熏而來，至於于今生，聞即開悟，一時頓畢，以實而論，是亦先悟後修之機也。則而此頓漸兩門，是千聖軌轍也。則從上諸聖，莫不先悟後修，因修乃證。所言神通變化，依悟而修，漸熏所現，非謂悟時，即發現也。

삼계의 뜨거운 고통은 마치 불난집에 있는 것과 같은데, 어찌하여 오래 머물면서 긴 고통을 달게 받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만약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임을 알라.

마음을 어찌 먼데서 찾는가? 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생겨나기도 없어지기도 한다. 참 마음은 허공과도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르길 “육체는 죽으면 지·수·화·풍의 사대로 환원되지만, 마음은 항상 신령스러워 천지에 가득하다” 고하였다.

슬프도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멘지가 오래 되었다.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참 진리인줄 몰라서 진리를 구하려 하면서도 성인들에게 멀리 미뤄버리고, 부처를 구하려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소견에 굳게 집착한채 불도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쳐서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경전을 쓰며, 눕지 않고 언제나 좌선하며,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으며 모든 대장경을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단지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알면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진리를 구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르시길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 여래의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으며, 또 “일체중생의 갖가지 허망된 생각은 모두 여래의 원만히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다. 따라서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오직 마음을 밝힌 분들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을 닦은 분들이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같은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오염되지 않아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오직 망녕된 생각만 버리면 곧 진정한 부처이다.

물음: 만약에 불성이 현재 이몸에 있다고 한다면, 불성이 이미 몸안에 있으면서도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어째서 나는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잘 해석하여 내가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답: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하루종일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줄 알고, 혹 성내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또 몸은 지·수·화·풍의 네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바탕이 완고하여 감정이 없는데 어찌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보고·듣고·지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너의 불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대는 법을 설해도 듣지 못하고,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해도 듣지 못하지만, 오직 그대 눈앞에 뚜렷이 밝은 형상없는 한 물건만이 법을 설하면 법을 들을 줄 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형상없는 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바탕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따라서 불성이 현재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하여 헛되이 밖에서 찾는가?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인연을 간략히

들어서 그대에게 의심이 없애도록 할테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란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존자: 성품을 본 것이 부처입니다.

왕: 스님께선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 나는 성품을 보았습니다.

왕: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존자: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왕: 어떤 작용인데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 지금도 작용을 드러내는데 왕 자신이 보지 못합니다.

왕: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존자: 왕께서 작용하면 그것(성품) 아닌 것이 없지만, 작용하지 않으면 그 본체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왕: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군데에 나타납니까?

존자: 여덟 군데로 나타납니다.

왕: 그 여덟 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나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존자: 태안에서는 몸이고, 세상에서는 사람이며, 눈에서는 보고, 혀에서는 말하고, 손에서는 붙잡고, 발에서는 걸입니다.

두루 나타나면 항하(갠지스강)의 모래같이 많은 세계를 모두싸고, 거두어 들이면 한낱 티끌 속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이는 精魂이라 부릅니다.

왕도 이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리어었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스님: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봤자 아마 그대는 믿지 않을 것이다.

스님: 스님의 성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귀종스님: 그대가 바로 부처이다.

스님: 어떻게 保任합니까?

귀종스님: 하나의 티끌이 눈에 들어 가니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위에서 말한대로 옛날 성인의 도에 들어간 인연을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로움을 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이 공안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이해하는 것이 생기면 곧 옛 성인들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갈 것이다.

물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마땅히 신통변화를 부려 남보다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부리지 못합니까?

답: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삿됨과 바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요즘 도를 닦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퇴굴심을 내어 도리어 도를 이룰 능력이 없다는 잘못에 빠져 모두 그대가 의심하는 것과 같은 데에 떨어진다. 사람들이 도를 닦으면서도 선후를 알지 못하고, 이치를 말하면서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삿된 견해이지 진실한 닦음이라 할 수 없다.

단지 자신만 그르칠 뿐만아니라 남까지 그르치는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도에 들어가는 데는 그 문이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돈오와 돈수는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나, 과거를 미루어 보면 이미 여러생동안 깨달음에 의해 차츰 닦아 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에 깨달아 단박에 모두 마친 것인데, 실제로는 그것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근기이다.

그러면 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간 길이다. 따라서 옛날부터 모든 성인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에 의하여 증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해 닦고 익히면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을 때에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론의 팔불(八不)

원순/ 송광사 강사 스님

論偈云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去 能說是因緣 善滅諸戲論 我稽首禮佛 諸說中第一. 今以因果 會釋八不義. 言不生者 如二十時爲因三十時爲果. 若離二十 有今三十 可言有生 若離二十 則三十不可得 是故不生故中論云 離劫初穀 今穀不可得 是故不生. 不滅者 則二十時不無 故不滅. 若二十時滅 今不應有三十時 中論云 若滅 今應無穀 而實有穀 是故 不滅也. 不常者則三十時 無二十時 是故不常 中論云 如穀芽時 種則變壞 是故 不常 不斷者 因 二十 有三十相續 是故 不斷 中論云 如從穀有芽是故不斷 若斷 不應相續不一者 二十不與三十同體 各性而住故 不一. 中論云 如穀不作芽 芽不作穀 是故不一. 不異者 不離二十 有三十. 若二十姓張 三十不異. 中論云 若異 何故 分別穀芽穀莖穀葉. 是故 不異. 不來者 二十不至三十時 是故 不來. 不去者 二十時當處自寂 不復更生故 不去也. 達此理者 則離一切戲論 契會中道 則真諦矣.

『중론』 계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生)도 아니요 멸(滅)도 아니며
상(常)도 아니요 단(斷)도 아니다
일(一)도 아니요 이(異)도 아니며
래(來)도 아니요 거(去)도 아니다.

이러한 인연들을 설할 수 있어
세간의 모든 희론 멸해 버리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 하오니
모든 설법 가운데 최상의 설법.

이제 인과로써 팔불(八不)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겠다. 불생(不生)이라는 것은, 스무 살 때를 인(因)이라 하고 서른 살 때를 과(果)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스무 살이란 인(因)을 떠나서 지금 서른 살이란 과(果)가 있다면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스무 살이란 인(因)을 떠난다면 서른 살이란 과(果)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생(不生)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론』에서는 “아주 옛날 겁초(劫初)의 곡식을 떠나서는 지금의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 이런 이유로서 불생이다”라고 하였다.

불멸(不滅)이라는 것은, 서른 살이란 과(果)에는 곧 스무 살이란 인(因)이 없지 않기 때문에 불멸(不滅)이라고 한다. 만약 스무 살 때의 인(因)이 멸하였다면 지금 응당 서른 살의 과(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중론』에서는 “아주 옛날 겁초의 곡식이 멸하였다면 지금 응당 곡식이 없어야 하나 실제로는 곡식이 있으니, 이런 이유로 불멸(不滅)이다”라고 하였다.

불상(不常)이라는 것은, 서른 살의 과(果)로 있을 때에는 스무 살의 인(因) 그대로가 없기 때문에 불상(不常)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론』에서는 “마치 곡식의 싹이 틈때에는 씨앗이 변하여 허물어지는 것이니, 이런 이유로 불상(不常)이다”라고 하였다. 부단(不斷)이라는 것은, 스무 살인 인(因)에서 서른 살인 과(果)로 계속 이어지기때문에 부단(不斷)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론』에서는 “마치 곡식에서 싹이 나와 있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이유로 부단(不斷)이라고 한다. 만약 곡식이 단멸하였다면 응당 곡식이 싹으로 나와서 서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불일(不一)이라는 것은, 인

(因)이었던 스무 살 때의 몸이 과(果)인 서른 살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스무 살과 서른 살의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머물기 때문에 불일(不一)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론』에서는 “마치 곡식이 싹일 수 없으며 싹이 곡식일리 없으니, 이런 이유로 불일(不一)이다”라고 하였다.

불이(不異)라는 것은, 스무 살의 인(因)을 벗어나지 않고서 서른 살의 과(果)가 있는 것이다.

만약 스무 살 때의 성(然)이 장(張)씨라면 서른 살때의 성(姓)도 장(張)씨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중론』에서는 “만약 곡식과 다르다면 무슨 이유로 싹과 줄기와 잎을 곡식의 싹과 곡식의 줄기와 곡식의 잎이라고 분별하는가. 이런 이유로 불이(不異)이다”라고 하였다.

불래(不來)라는 것은, 스무 살인 인(因)이 서른 살인 과(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래(不來)라고 한다. 불거(不去)라는 것은, 스무 살인 인(因)은 당처에 스스로 공적하여 다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불거(不去)라고 한다.

이 이치를 통달한 자는 곧 일체의 모든 희론을 떠나 중도에 계합하니 곧 진실한 진리이다.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병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물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잡보장경 제 3:3-436상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더위가 심함은 곡식이 익어감입니다. 모든 일에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 시련의 극복 속에서 주변과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더위와 경제난 속에서 더욱 삶의 고뇌를 느끼시겠지만 복잡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수행심과 힘듦 속에서도 더욱 힘든 이를 생각하는 자비심이야말로 불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가 계시더라도 장애자이거나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장아닌 가장의 위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훈훈한 정을 줄 수 있다면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난 한해동안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분들의 동참을 권해 봅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 ● 예 금 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 540 - 930)
- 송광사 강원 혜 루 ☎ (0661) 755 - 5302

강의(특강) TAPE

우리 송광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특강) TAPE를 구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카세트 TAPE		
TAPE 목록	가 격	TAPE 개수
금강경 오가해 1~4(지운스님)	120,000원	85개
법화경 1~2(지운스님)	50,000원	33개
인도철학(정연스님)	30,000원	18개
차 이야기(용운스님): 책포함	30,000원	17개
반야심경, 유식30송(정화스님) : 책포함 청전스님의 티벳불교 2개 포함	30,000원	16개
비디오 TAPE		
영성의 불교적 이해(지운스님)	7,000원	1개
설법하는 법 1~4(진옥스님)	30,000원	4개
■ 구입처 : 송광사 강원 서기 ■ 우체국 온라인 : 500660-0035350 ■ 전화번호:(0661) 755-5302		

※ 본 테이프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를 위하여 쓰여집니다.

편집후기

매철 발행하던 “정혜사”를 강당내의 사정으로 두번씩 발행하는데 악역을 담당한 저에게 정혜사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없이 가버린 같은 반 정혜사 소임자스님들을 원망할 사이도 없이 제게 주어진 소임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다행히 대중스님네의 도움으로 원고를 마감하는 지금, 혹 조그만 공명심으로 몸을 두지 않을 곳에 거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편집위원 스님들 덕에 여론호 정혜사는 꿀(相)값을 하리라 생각하며 더욱더 다행인 것은 이번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임을 맡았던 본인의 물러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표지 이야기

반결재를 맞아 한달 반 만에 바깥나들이를 했습니다. 푸른 들판을 달려 도착한 전주 송광사에서 치문반스님들이 한껏 포즈를 잡았습니다.

강원 사정으로 인하여 매철 나오던 정혜사가 안거때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정혜사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 월 일, 정 영 애, 조 남 숙, 강 민 지, 진 여 화, 송 주 현, 류 인 석, 고 동 수, 영 산 행, 김 윤 우, 정 혜 숙, 이 정 수, 김 갑 숙, 강 윤 숙
도서출판 보림

■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 불일장학회 2,000,000원
- 진옥스님 700,000원
- 익명의 스님 500,000원
- 원통스님 500,000원
- 무비스님 1,000,000원
- 대구 관음사 300,000원
- 원각사 교리 법회 200,000원

☺ 정혜사 후원자를 모집니다

정혜사가 ‘호’를 거듭할수록 여러 불자님들의 호평과 때로는 질책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면에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는 여러 불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정혜사’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 - 0205429 - 17

예금주 : 서화교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정혜사 편집실

우 편 : 540-930 전 화 : 0661) 755-5302

2542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2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사미율의 반	신입 〇〇 명
	치문반	편입 〇〇 명
	사집반	편입 〇〇 명
	사교반	편입 〇 명

자 격	사미율의반 : 사미계 수지자
	치문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집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교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2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승적사본	1부
	승려증사본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사진 (3 × 4)	3매
	방부금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불기 2542년 9월 7일 ~ 11월 30일 (양력)
문 의 처 : (0661)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三日庵

그 王子 여기와서 三日 닻가 깨쳤다니
 三日庵 三日泉에 三日精進 그대로면
 우리도 十七十八에 末席차지 일런가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三日庵 三日庵은 따로 떨어진 암자가 아니다. 조실스님이 계신곳의 靜閑함을 표현한 것. 이 곳에서 중국천자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 담당국사가 삼일동안 용맹정진으로 도를 깨쳤다하여 삼일암으로 부르게 되었다.